

# 코로나19 관련 해외시장 주간동향보고

(2022.6.7., 국제관광전략팀)

## <중국>

### ○ 중국 내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확진 현황

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 신규 확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통합) 33억 8,391.8만회(6.4)</li> <li>○ (2차 접종 완료) 12억 5,685.7만회(6.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지역 1개(베이징 1개), 중위험지역 28개(베이징 7, 상하이 11, 이외 10)</li> <li>○ 일일 신규 확진자 31명(해외유입 6명, 본토 25명), 치료 중 1,179명(6.5)</li> <li>* 베이징 일일 신규 확진자 5명, 상하이 4명</li> </ul>

### ○ 중국문화여유부, 현재 29개 성에서 지역(성) 간 단체관광 진행 중 발표(6.5)

- 베이징, 상하이 제외 전 지역 단체관광 가능
- 방역상황에 따른 세부내용 지역별 상이

### ○ 지역별 방역 동향

- 베이징시 각 관광지 허용인원 50% → 75% 확대(6.5~)
- 베이징 시내 공공장소 방문 및 대중교통 탑승 시 48시간 →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필요(6.6~)
- 상하이시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무료 운영(6.1~30)
- 선양시·하얼빈시, 입국 후 격리조치 완화(5.30)
  - \* 선양시 : 28일 집중격리+28일 자택격리→21일 집중격리+7일 자택격리+7일 자기관찰
  - \* 하얼빈시 : 21일 집중격리+14일 자택격리→14일 집중격리+7일 자기관찰
  - \* 1인 1주택 경우 자가격리, 관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실시
- 저장성 방역당국, ‘효율적인 방역 및 관광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공지’ 발표(5.31)
  - \* 최근 7일 이내 확진자 미 발생 시, 엄격한 방역 조치 전제 하 관광·회의·전시회·행사 등 추진 가능

### ○ 지역별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방안

- 상하이 문화여유국, ‘상하이 여행업계 회복 및 고품질 발전 관련 조치’ 추진 (5.31)
  - \* 비용부담 경감, 정책 병목 해소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여행사 경영안전지원, 금융지원, 여행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내용 포함
- 광둥성, 경제 안정화 정책 발표(5.31)
  - \* 성 재정자금 활용, 중점 여행사·A급 관광지 등에서의 소비촉진을 통한 문화관광기업 지원
- 후베이성, 소비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유도를 위한 소비쿠폰 대량 발행 발표(6.1)
  - \* 숙박·식사·문화·여행·스포츠 소비 쿠폰 지속 발행(6월~12월)

## <대만·홍콩>

### ○ 대만 · 홍콩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분	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 신규 확진 현황
대만 (6.5 기준)	○ (1차) 20,908,631명 (전체 90.07%) ○ (2차) 19,049,515명 (82.06%) ○ (3차) 15,639,391명 (66.49%) ○ (4차) 10,757명 (0.05%)	○ 최근 2주 간(5.24~6.6)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76,526명 기록(해외유입 미포함) - 6.6 1일 신규 확진자 52,992명 기록 * 5.10~5.23 기간 1일 확진자 70,725명
홍콩 (6.1 기준)	○ (1차) 6,702,235 (92.1%) ○ (2차) 6,336,938 (87.1%) ○ (3차) 3,930,874 (57.9%) ○ (4차) 111,187	○ 최근 1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200~300명대 유지 중임

- (대만) 방한 직항노선 주 11편 → 13편으로 확대(6.1~, 중화항공 2편 증편)
- (대만) 선사 · 여행사, '23.3월 이전 대만발 크루즈선 운항 재개 난항 전망
- (대만) 교통부, CDC와 항공승무원 및 일반인 격리기간 추가 단축 협의 중

구분	현행	변경(안)
항공승무원	격리 3일 + 능동감시 4일	격리 0일 + 능동감시 7일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일반인	격리 7일 + 능동감시 7일	격리 3일 + 능동감시 4일 단축 검토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부터 우선 적용)

- (대만) 한국, 코로나19 이후 대만인 선호 해외여행 목적지 2위 기록
  - (Xin미디어) 일본, 한국, 중국(홍콩 · 마카오 포함), 북미, 미국 순
  - (Klook) 일본, 한국, 태국, 중국,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순
- (홍콩) 홍콩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정(6.1~)
  - 3세 미만 입국자 및 환승객 : 입국 48시간 전 PCR 검사 제출 불요
  - 그 외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유지하되, 홍콩 정부 공식 인증 코로나19 검사기관 리스트 제출의무 폐지
  - 기존에는 항공사가 홍콩 입국 탑승조건 미충족 고객을 탑승시킬 경우 즉시 5일 간 운항을 일시 중지시켰으나, 6.1부터는 1차 벌금(2만 불), 경고 → 10일 이내 재발 시 5일 동안 항공노선 중지조치로 완화 됨
  - 기존 입국자는 격리 종료 후 입국 12일째 되는 날 지정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6.1부터는 격리 종료 후 입국 9일(추가), 12일 차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출처) 홍콩 정부 보도자료 [www.news.gov.hk/eng](http://www.news.gov.hk/eng)
- (홍콩) 행정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는 6월까지 없을 것으로 발표(6.1)

## <일본>

백신 접종 현황(6.1)	코로나 신규 확진 현황(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103,580,853명 (전체 81.8%)</li> <li>○ 2차 : 102,074,689명 (80.6%)</li> <li>○ 3차 : 75,179,025명 (59.4%) * 4차 : 5,024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확진자 15,109명(전주 대비 5,714명 감소)</li> <li>누적 확진자 8,949,224명</li> </ul>

- 1일 입국자 제한 3만 명으로 상향조정 검토(6.1)
  - 6.1부터 2만 명으로 증가한 입국제한 인원을 7.1 이후 조정 검토 중
  - 감염 확산 현황을 반영하여 상한 철폐여부 검토 예정
-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대상 백신 4차 접종 개시(5.25~)
  - 3차 접종 후 5개월 이상 경과자 대상 일반 의료기관 접종 개시
  - 대규모 접종센터 활용 4차 접종 추진 예정(6.13~)
- 외국인 단체관광객 수용 관련 감염대책 수립 추진(6월 중)
  - 외래객 단체여행 실증실험 결과 반영 감염대책 가이드라인 공포 예정
  - \* 외국인 관광객 단체여행 실증실험 중 태국 실험 투어단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5.30)으로 해당 투어 전면 중단 → 외국인 단체관광객 수용방침은 변동 없음
  - 단체 관광객 대상 마스크 착용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 요청 방침
-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나하공항(오키나와) 외 센다이공항 등 타 지방 공항 국제선 운항 순차재개 방침 발표(5.31)

## <동남아중동>

- (터키)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 해제(6.1~)
  - 항공기 포함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의료시설은 착용 필수(5.30~)
- (인도네시아) 도착비자 허용 국가 60개국에서 72개국으로 확대(6.2)
  - \* 바레인, 벨로루시, 보스니아,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 오만, 페루,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요르단
- (태국) Test&Go 입국 프로그램\* 폐지 이후 외래 방문객 지속 증가(5.30)
  - Test&Go 폐지 이후 일 평균 외래방문객 수 4월 1만 명 대비 5.1~5.21 간 2만 명으로 증가함
  - 태국 관광청은 9월까지의 매월 최소 50만 명, 10월부터 연말까지는 매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태국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함
  - \* 백신 접종자 대상 입국 당일 PCR 검사(정부승인 호텔에서 1박 격리) 후 음성일 시 격리 면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5.1일부로 폐지됨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관광공사, 2022-26 마케팅 전략 발표
  - 국내여행 활성화, 스마트 협업,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6개 중점과제 발표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코로나19 확산방지위원회에 백신여권\* 유효기간 연장방안(6개월→1년) 심사·의결 예정(6.1)
  - \* 카자흐스탄 eGOV를 통해 발급 받은 백신접종 증명서
- (필리핀) 전국 19개 Watson 매장을 통해 부스터샷 무료 접종(5.30~)
  - 국가 차원의 부스터샷 접종 확산을 위해 접종자 대상 Watson 구매액의 10% 할인 인센티브 제공
- (싱가포르) 건국절 퍼레이드 행사(NDP 2022), 2년 만에 일반 대중 관람 허용
  - 사전행사(7.23, 7.30) 및 건국절 당일(8.9) 행사에 참가 가능하며,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신청 가능.
  - 6.6 정오부터 6.20 정오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예정
- (UAE) 최근 1개월 간 안정세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 중단(5.26~)
- (인도) 코로나 확진자 최근 일주일간 35.22% 급증
  - 인도 내 모든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확진자·사망자 증가 추세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규제 조치 계획 없음
  - \* 6.6일 기준 일일 확진자 45백명 (1월 말 35만 명)
- (베트남) Nikkei Asia 선정 코로나19 회복지수\* 62위에서 14위로 상승(6.3)
  - \* 감염자 관리, 백신접종, 사회적 이동 등에 기반하여 닛케이(Nikkei)에서 각 국가·지역의 코로나19 회복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순위

## <구미대양주>

- (호주) 서호주주, 백신 미접종 호주 시민 및 영주권자 귀국 시 격리 면제(6.1~)
  - 높은 백신접종률(부스터샷 접종률 약 82%)에 따라 해외 방문 후 서호주주로 귀국하는 백신 미접종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대상 7일 격리 의무 폐지.
  - 주당 입국 인원수 70명 제한도 폐지
  - 단, 외국인 백신 미접종자는 현 코로나19 연방 규율에 따라 호주 입국 불가
- (캐나다) 정부, 출입국 규제 6월 말까지 연장(5.31)
  - 입국객 백신접종 의무화 및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무작위 선별검사 유지
  - ArriveCAN(앱) 여행정보 입력 의무 유지(입국 72시간 이내 또는 비행기 탑승 전)
- (스페인) 유럽연합 발 여행객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6.2~)
  -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영국 포함(단, 영국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이탈리아) 모든 입국객 대상 그린패스(방역패스)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 해제(6.1~)
  - 단, 대중교통, 영화관, 공연장,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6.15)

-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5.30)\*로 인한 전년 동기 대비 확진자 6배 이상 증가
  -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결과, 5.28일 기준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감염자수는 11만 9,025명에 달했고 전년 동기 대비 6.7배 급증함. 이에 반해 동기간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7명에서 167명 줄어든 470명으로 집계됨
  - \* 미국 남북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공휴일로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 (러시아) 러시아국민의료공단(invitro) 조사 결과, 백신 접종자 절반 이상(56%) 추가 접종 의향 있는 것으로 확인

※ [참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외교부, 6.7 10시)

□ 총 149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수)
입국금지	41개국(전주 대비 -3) * 중국 : 기존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20.3.28~) 단, 취업, 유학,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 동일목적 비자신청 가능 ** 이 중 22개국은 백신 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격리조치	12개국(전주 대비 -2)
검역강화 및 권고	96개국

\* 입국제한해제 : 41개 국가·지역(엘살바도르,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몽골,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코스타리카, 슬로바키아, 가봉, 자메이카, 몬테네그로, 체코, 쿠웨이트, 불가리아,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쿠바, 오만, 벨기에, 사이프러스, 그레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독일)

※ 참고자료

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3. 각국의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현황
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현황
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6. 해외지사 운영 현황 각 1부. 끝.



## 참고1

##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6.7 기준]

국가	내 용	
중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여행(단체 및 에어텔) 상품 판매 금지( '20.1.24)</li> <li>○ 감염병 관리 우수 지역의 성(省)간 단체상품 판매 및 운영 허가( '20.7.14)</li> <li>○ 중국 대륙 주민의 마카오 입국 시 검역단계 하향조정 자기격리 면제( '20.7.14)</li> <li>○ 자국 내 저위험지역 이동제한조치 완화( '21.3.16)</li> <li>○ 여행사 및 OTA 대상 자국 내 성 간 관광 및 에어텔 영업 금지 (21.12.17~22.3.15)</li> <li>○ 여행사 및 OTA 대상 자국 내 성 간 단체관광 및 에어텔 영업 금지 지속( '22.3.16~5.15)</li> <li>○ 여행사 및 OTA 대상 출입국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업무 취급 금지( '22.5.16)</li> </ul>
	아웃바운드	○ 국가이민관리국, 엄격한 출입국 정책을 통한 국민의 불필요한 출국 활동 제한( '22.5.12)
홍콩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관광청, 내수경기 활성화 및 국내여행 장려를 위한 홍콩 여름맞이 특별 프로그램 시행( '22.5월, HongKong Summer treats)</li> <li>* 800불 이상 국내에서 소비한 고객은 500불 할인된 가격으로 스테이크이션 상품 이용가능</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거주자(영주권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접종 2차까지 완료자 홍콩 입국 가능( '22.5.1~)</li> <li>○ 홍콩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관련 정책 미세조정( '22.6.1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인증 의료기관 리스트 제출의무 폐지</li> <li>- 3세 미만 입국자 및 환승객은 입국 48시간 전 PCR 검사결과 제출 불필요</li> <li>- 홍콩입국 탑승조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한 고객을 탑승시킬 경우, 1차 벌금(2만불)/경고→10일 이내 재발 시 5일 동안 항공노선 중지조치로 완화</li> <li>- 격리 종료 후 입국 9일(추가), 12일째 되는 날 PCR 검사로 변경</li> </ul> </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거주민 해외여행 후 입국 시 홍콩 지정호텔에서 자비로 의무격리 필요 (백신접종 완료자 7일, 기타 미접종자 등 14~21일)</li> <li>○ 홍콩 출국자수(항공이동 기준) '22.2~4월 기준 전년대비 187% 증가</li> <li>*( 출처 ) 홍콩인구통계국, www.censtatd.gov.hk</li> </ul>
대만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광) 5.27~8.3, 관광산업 종사자(5만명)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li> <li>○ (안심관광) 7.1~10.31,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li> <li>○ 관광국, 국제관광 관련 예산(한화400억원) 안심관광 지원금으로 추가 투입(8.28)</li> </ul>
	인바운드	○ (국제관광객 유치) 거류증 미소지 외국인 입경 및 대만 경유 환승금지 ( '21.5.19 ~ 현재)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팔라우 트래블 버블 개시( '21.4.1 첫 단체 출발)</li> <li>○ 대만 내 전염병 경계등급 격상으로 트래블 버블 시행 일시 중지( '21.5.22~8.13)</li> <li>○ 대만-팔라우 트래블 버블 재개( '21.8.13~ '22.1.24)</li> <li>○ 팔라우 내 확진자 증가로 대만-팔라우 트래블 버블 재중단( '22.1.25부 ~ 현재)</li> </ul>
일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활성화 「Go To 캠페인」 1조 6,794억엔 추경 예산 편성( '20.4.7)</li> <li>○ 관광청, 「Go to 트래블」 캠페인 7월 22일부터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되었던 도쿄, 정식대상으로 추가 ( '20.10.1~)</li> </ul> </li> <li>○ 오사카부, 삿포로시 등 코로나-19 급증지역 「Go To 트래블」 캠페인 일시정지 기간 연장( '20.12.14)</li> <li>○ 「Go To 트래블」 캠페인 전국 일시정지 실시( '20.12.28~ '2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도( '20.12.18~), 나고야시(20.12.16~), 히로시마(20.12.24~)은 선행하여 정지 실시</li> <li>* 가구매건 취소 수수료 면제, 사업자 대상 여행 대금 50% 보상 방침</li> </ul> </li> <li>○ 「Go To 이벤트」, 「Go To 상점가」 캠페인 일시중지(20.12.28~ '21.1.11)</li> <li>○ 비즈니스 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중단 조치 3.21일까지 연장( '21.2.2~3.21)</li> <li>○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Go To 트래블」 중단( '21.1.12~)</li> <li>○ 국토교통성, 「Go To 트래블」 캠페인 중지 연장( '21.6월~연말) 여부 검토 중</li> <li>○ 지자체 내 투어(마이크로 투어리즘) 지원( '21.4.)</li> <li>○ 도쿄도, 골든위크(4월말~5월초) 관광 자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키나와/홋카이도 등 골든위크 이후 확진자 수 대폭 증가</li> <li>* 일부 지자체 내, 현민 대상 현 내 관광 대상 할인캠페인 소폭 재개</li> </ul> </li> <li>○ 수도권, 여름휴가 및 추석(8월 초~중순) 귀성 및 관광 자체 요청( '21.8.)</li> <li>○ 「Go To 트래블」 캠페인 재개를 위한 시범여행 실시( '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결과 반영하여 '21.11월까지 캠페인 지침 발표 예정</li> </ul> </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트랙, 입국제한 일부 완화( '2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목적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격리기간 3일로 완화 (국제회의 등 특수한 상황에 한정, 일반업무수행의 경우 격리기간 10일로 완화)</li> </ul> </li> <li>○ 신규 외국인 입국자 대상 전면 입국제한 조치 시행( '21.11.30~)</li> <li>○ 비즈니스 트랙 및 유학비자 소지자 등 입국제한 일부 완화( '2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입국자 상한 7,000명으로 확대(유학생 별도)( '22.3.14~)</li> <li>* 하루 입국자 상한 10,000명으로 확대(유학생 별도)( '22.4.10~)</li> <li>* 비즈니스 목적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격리 면제( '22.5.17~)</li> <li>* 하루 입국자 상한 20,000명으로 확대 검토 중(유학생 별도)( '22.6.1~)</li> </ul> </li> <li>○ 외국인 관광비자 신청·발급 재개( '22.6.10~)</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여행협업체( JATA ) 아웃바운드 재개 준비를 위한 해외 사찰 투어 실시</li> <li>* 하와이( '22.4.3~7 ), 한국( '22.4.17~21 ), 이후 동남아시아 검토 중</li> </ul>
태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계획 발표('20.7.1)</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시행 첫날 19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등록('20.7.17)</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으로 호텔 객실 예약 수 360만개 도달('20.7.21)</li> <li>○ 국내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의 혜택 확대 방안 승인('20.8.27)</li> <li>○ 관광청, 태국 거주 외국인(18만 명) 여행 장려를 위해 1인당 500바트 지원('20.9~11월) 준비</li> <li>○ 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 여행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여행 패키지 마련 및 외국인 대상 관광 보조금 제공 지원 계획('20.10.30)</li> <li>○ 백신 접종 목표 달성할 경우 8월 국내 관광 재개 예정 ('2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We Travel Together(제3차) 및 Travel Around Thailand 프로젝트 시행을 통하여 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li> </ul> </li> <li>○ 주요 관광지(방콕,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신년맞이 축제 돌입(21.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해 첫날 주류 구매시간 연장 승인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발표에 따라 신년맞이 축제 계획 착수</li> <li>- 파타야 : 발리하이(bali hai pier) 선착장 내 신년맞이 공연 계획 중(21.12.29~12.31)</li> <li>- 푸켓 : 새해 전야 영업 허용시간 23시에서 오전 6시까지 연장할 계획</li> <li>- 치앙마이 : 5개 지역 내 새벽 1시까지 주류 판매 승인 예정</li> </ul> </li> <li>○ 방콕시, 오미크론 확산 우려 신년행사 전격 취소(21.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행사의 경우 반드시 시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 당부</li> </ul> </li> <li>○ 태국 동북부 수린도 주, 4.1일 예정이었던 엔데믹 전환 선언, 송고란 연휴(4.13~15) 이후로 연기('22.3.29)</li> <li>○ 태국관광청, 22년 국내여행 총 수입 6,560억 바트로 전망('22.4.8, Bangkok p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분기 국내여행 횟수는 총 2,970만 건으로 1,350억 바트의 수입이 발생함. 이에 근거하여 22년 연간 국내여행 수입이 6,560억 바트(한화 24조 1,08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li> </ul> </li> <li>○ 코로나19 상황개선에 따라 방역지침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하('22.5.10)</li> <li>○ 관광청, '22년 상반기 국내관광 8,000만 회, 연간 1억 6천만회 달성 목표 설정(22.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1분기 국내관광 횟수는 약 2,880만회, 2분기는 5천만회로 예상. 태국 내 코로나19 감염상황 개선에 따라 국내여행 심리 회복세</li> </ul> </li> <li>○ 푸켓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2일 만에 번복(2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일부로 푸켓주 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조치 2일 만인 5.3일부로 행정명령을 통해 취소하거나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실외, 차량,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실시</li> <li>- 해제 방침 번복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조기 폐지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li> </ul> </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지정 저위험국가발 백신 접종 완료 입국객 대상 무격리 입국 허용 추진('2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격리 입국 시행 시 21년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3,200억 바트 달성 예상</li> <li>- 내년도 최소 1,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li> </ul> </li> <li>○ '21.11.1일 방콕의 국제관광 재개 준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콕의 유명 관광지 등에 방역관리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발열체크가이드기 안내 및 마스크 착용 당부 등 확산대비 대응책을 마련함. 아울러 향후 매 주 변화상황을 점검하며 확산상황을 관리할 예정</li> <li>-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은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 직후 실시하는 PCR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최소 1박의 숙박시설 예약을 증명해야만, 공항에서 숙박시설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확인 시, 자유롭게 이동 가능</li> <li>- 방콕시장, 방콕의 국제관광 재개 시 1개월 내 30만 명의 관광객 유치 예상('21.10.26)</li> </ul> </li> <li>○ 외교부, 무격리 태국 입국 가능 출발지역 기존 46개에서 63개 지역으로 확대('21.10.30)</li> <li>○ '21.11.1일 국가개방 첫날, 국제선 9편 통해 외국인 약 5,300명 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윗타씩 태국관광청은 관광 성수기에 국가 개방이 실시된 만큼, 외국인 방문객이 서서히 증가하여 21년 11월~22년 3월까지 약 100만 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li> </ul> </li> <li>○ '21.11.4일 기준, 태일밴드패스(Thailand Pass) 신청 누적인원 65,338명 기록. 이 중 12,607명 입국 허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영사국 자료에 따르면 11월 1주차 온라인 입국 허가서(COE, Certificate of Entry) 발급자 약 13,000명으로 태국의 국가 재개방 정책 성공적으로 진행</li> </ul> </li> <li>○ 11월 국가 개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미미(2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한 달 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13.3만명으로 작년 초 월 300만 명 대비 현저히 낮은 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관광수요가 부진하여 여전히 내수 국내관광에 의존하는 상황임</li> </ul> </li> <li>○ (21.11.1~12.20) 국가 재개방 후 50일 간 총 304,391명 입국. 이 중 548명 코로나 감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자 수) 무격리 입국(Test&amp;Go) 253,502명, 샌드박스 입국 41,492명, 격리 입국 9,397명</li> <li>- (확진자 수) 무격리 입국(Test&amp;Go) 310명, 샌드박스 입국 94명, 격리 입국 144명</li> </ul> </li> <li>○ 63개 국가 백신접종 외국인( 및 태국인 귀국자) 대상 1박 격리 중단, 격리기간 7일로 연장('21.12.22~)</li> <li>○ 무격리입국(Test&amp;Go) 재개('2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63개 출발지역에 대해 적용 → (변경) 모든 지역으로 확대</li> <li>- (기존) PT-PCR 검사 1회(도착 당일 검사(1박) 및 음성결과 확인 후 격리 해제)</li> </ul> </li> </ul>

		<p>→ (변경) PT-PCR 검사 2회(도착 당일(1박) + 입국 5일차(1박))</p> <p>○ 샌드박스 프로그램 적용지역 확대('22.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푸켓, 끄라비, 팡응아, 쑤랏타니(꼬사무이, 꼬팡안, 꼬따오)</li> <li>- (추가) 드랏(꼬창), 촌부리(방라몽 파타야, 씨라차, 꼬씨창, 싸따힘 나 찜티안·방싸레)</li> </ul> <p>○ '22.3.1부터 Test&amp;Go 입국 요건 일부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PCR 2회 검사(도착 당일 정부승인 호텔 1박 격리)+입국 5일차 정부승인 호텔 1박 격리 심사)</li> </ul> <p>→ (변경) PCR 1회 검사(도착 당일 정부승인 호텔 1박 격리) + 셀프 신속항원검사 1회 검사(입국 5일차 무격리 셀프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USD 50,000 이상 보험 가입 → (변경) USD 20,000 이상 보험 가입</li> </ul> <p>○ '22.4.1부터 Test&amp;Go 입국 72시간 전 PCR 검사 의무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태국 도착 당일 PCR 검사(정부승인 호텔 1박 격리) 및 5일차 신속항원검사 자가 진단(무격리) 절차는 유지</li> </ul> <p>○ '22.4.1일부 입국 전 PCR 검사 요건 폐지로 입국객 65% 증가('22.4.7, Bangkok po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한 국제선 입국객 일 평균 11,623명으로 3월 일 평균 7,003명 대비 65% 증가</li> <li>- 수완나품 공항 국제선 항공편도 3월 일평균 137개 대비 4월에 일 평균 141개로 증가함</li> </ul> <p>○ 방콕 수완나품 공항,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입국장 혼란 상황 대응을 위해 호텔 전용 카운터 추가 설치(4.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st&amp;Go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공항-호텔 간 이동차량, PCR 검사 및 1박 숙박이 패키지로 구성된 호텔상품을 미리 구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과 호텔 직원 간 공항 내 미팅을 위한 카운터 설치 필요</li> </ul> <p>○ 태국공항공사, 4월 이후 항공 이용자 급증('22.4.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4.7일까지 방콕 수완나품, 돈무앙, 푸켓, 치앙마이 및 치앙라이 등 6개 국제공항 이용 항공 여행객은 총 894,756명, 일 평균 127,822명으로 지난 달 107,194명 대비 급증함</li> </ul> <p>○ 송끄란 연휴기간(4.9~4.18) 방콕 수완나품 공항 이용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120% 증가('22.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휴 10일간 수완나품 공항 이용 항공 탑승객(국내선·국제선 이용, 인·아웃바운드 포함) 총 585,0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 일 평균 탑승객은 45,006명으로 일 최대 탑승객은 65,327명을 기록함</li> </ul> <p>* 송끄란 : 타이력의 정월 초하루(4.13일)인 송끄란을 기념하는 명절</p> <p>○ '22.5.1부터 Test&amp;Go 입국 프로그램 폐지 등 입국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태국 도착 당일 RT-PCR 검사(정부승인 호텔 1박 격리) 의무</li> <li>→ (변경) 태국 체류기간 중 셀프 ATK 검사(무격리) 권고</li> <li>- (기존)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보험 USD 20,000 이상 가입 → (변경) USD 10,000 이상 가입</li> <li>- 단, 태국 입국 사전 승인을 위한 타이랜드 패스(Thailand Pass) 등록 절차는 유지</li> </ul> <p>○ 정부, 6.1일부로 타이랜드 패스 절차 폐지 검토 중('22.4.28)</p> <p>○ 정부, '22년 3분기 외국인 대상 300바트의 관광세 부과 예정('22.4.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사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Thailand Tourism Fee(TTF) 시스템을 통해서 관광세가 징수될 예정이며, 외국여권 소지자가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 항공사 웹사이트와 TTF 시스템이 연계되어 관광세 징수 화면이 표시 될 예정.</li> <li>- 해당 관광세는 외국인 관광객의 부상·사망 보험 및 주요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항공 및 관광기금으로 조성될 예정</li> </ul> <p>○ 정부, 외국인 대상 관광세 부과 적용시기 당초 4.1에서 6월로 유예('22.5.4)</p> <p>○ 정부, 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 개최 계획('22.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 6~7월 간 방콕 도내 벤짜끼띠(Benchakitti) 공원에서 라이브 음악 쇼 개최</li> <li>- 그리팅 방콕(Greeting Bangkok) : 7~9월 간 프라타콘과 톤부리 지역의 불교시설과 박물관 등 방문객에게 자주 개방되지 않는 지역 개방</li> <li>- 비비드 짜오프라야(Vivid Chao Praya) : 11월에 개최되는 2022 APEC 정상회의의 참석자를 환영하기 위해 짜오프라야 강변 조명 장식</li> <li>- 리빙 후워람퐁(Living Hua Lampong) :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Bangkok Design Week 행사의 일환으로 후워람퐁 중앙역에서 아트 디스플레이 구현</li> </ul> <p>○ '22.6.1부터 태국 입국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인) 타이랜드 패스(Thailand Pass) 등록 절차 폐지</li> <li>- (외국인) 타이랜드 패스 등록 절차는 유지되나, 대기기간 없이 태국 입국 승인 QR코드 자동 발급 등 절차 간소화</li> </ul> <p>○ 보건부, 원숭이 두창 확진자, 태국 공항 환승객 접촉자 면밀 관찰('22.5.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에서 호주로 환승하기 위해 태국 공항에 2시간 체류했던 외국인 관광객 중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밀접 접촉자 12명 대상 잠복기인 3주간 추적 관찰을 실시할 계획</li> </ul>
싱가포르	국내	<p>○ 싱가포르 관광청(STB), Enterprise Singapore 및 센토사개발조합과 9개월 동안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 실시</p> <p>○ SingapoRediscovered Vouchers(S\$100) 배포계획 등 세부사항 발표('20.9.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 국민에게 올 12월 배포 예정, 21년 6월까지 유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18일부터 싱가포르 관광지 수용인원의 허용범위 확대(25%→50%, 야외 행사의 경우 50명→250명 미만)</li> <li>○ 백신접종률 70% 돌파에 따라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시행('21.8.19~)</li> <li>○ 백신접종률 82% 돌파했으나 지역감염자 증가세 뚜렷함(7일 평균 400명)</li> <li>○ 지역감염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재 강화('21.9.27~11.21)</li> <li>○ 감염병 예방 조치 일환인 재택근무(WFH) 연장('21.11.22~)</li> <li>○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일부 완화(모임 및 식사 가능)('21.11.22~)</li> <li>○ 재택근무(WFH) 50%만 실시 및 백신접종자는 50% 출근 가능('22.1.1)</li> <li>○ 백신접종 완료 유지하려면 2차 접종 이후 270일 내 부스터 추가 접종 필수('22.2.14~)</li> <li>○ 가구당 최대 순방문자 수를 1일 5명에서 1회 5명으로 완화('22.3.15~)</li> <li>○ 종교 및 각종 행사 규모 제한 해제, 다만 대규모 공연 등 1천명 이상 모객 행사는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22.3.15~)</li> <li>○ 지정된 장소에서 최대 30명까지 단체 스포츠 활동 재개('22.3.15~)</li> <li>○ 만12세 이하 백신 미접종 아동의 건물 입장 시 규정 완화('22.3.15~)</li> <li>○ 공원 및 콘도, HDB 내 비배규 피트 이용 재개('22.3.18~)</li> <li>○ 식사 등 모임 시 5명에서 10명으로 제한 완화('22.3.29~)</li> <li>○ 대규모 공연 등 1천명 이상 모객 행사는 수용인원의 75%로 확대('22.3.29~)</li> <li>○ 백신접종자는 75% 출근 가능으로 확대('22.3.29~)</li> <li>○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폐지,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22.3.29~)</li> <li>○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 재개('22.4.19~)</li> <li>○ 코로나19 제한조치 대폭완화('22.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li> <li>- 야외모임 및 1천명 이상 실내 대향행사 개최 시 인원제한 폐지</li> <li>- 실내시설 입장 시 추적시스템(Trace Together) 의무 폐지</li> <li>- 재택근무 25% 의무 폐지, 백신접종자 전원 출근 가능</li> </ul> </li> <li>○ 뷔페 레스토랑에서 고객 셀프 서비스 허용('22.4.30~)</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호주, 유학생 대상 트래블버블 시범운영 합의</li> <li>○ 근로비자 소지자 입국 재개('21.8.10)</li> <li>○ 한국 등 4개국 대상 비즈니스 출장자 입국 허용 검토(9월부터)</li> <li>○ 독일, 브루나이와 상호 백신여행통로(VTL) 협정 체결 상호 여행교류 재개('21.9.8)</li> <li>○ 한국 출발 입국객 격리기간 7일로 단축('21.9.9)</li> <li>○ 독일발 백신여행통로(VTL) 대상자 입국 개시('21.9.8~1,412명)</li> <li>○ 싱가포르 입국객(7일 격리 대상)은 도착 PCR테스트(창이공항) 면제('21.10.26)</li> <li>○ 싱가포르-호주, 싱가포르-스위스 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1.11.8~)</li> <li>○ 한국-싱가포르 양국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1.11.15~)</li> <li>○ 싱가포르-말레이시아(KL) 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1.11.29~)</li> <li>○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인도 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1.11.29~)</li> <li>○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VTL 항공편(창이-쿠알라룸푸르) 조치 시행('21.11.29~)</li> <li>○ VTL 입국 여행객 대상 추가조치 시행(3일차 및 7일차 ART 검사 추가('21.12.3~)</li> <li>○ 싱가포르-태국, 캄보디아, 몰디브, 피지, 스리랑카, 터키와 무 격리 관광 상용 여행 조치(VTL) 시행('21.12.16~)</li> <li>○ 싱가포르와 체결한 VTL 전 국가 대상 항공권 및 버스승차권(말레이시아 육로) 판매 일시 중지('21.12.22~22.1.20)</li> <li>○ 싱가포르-대만 양국 간 디지털 인증서(백신접종) 상호 인정('22.1.28~)</li> <li>○ 싱가포르 입국 국경제한 조치 완화('22.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이력 조건 14일에서 7일로 단축,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VTL, 카테고리 1 국가 입국자 등 제외) 국가/지역 상관없이 7일로 표준화</li> <li>- VTL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의무 ART 검사 조치 중단</li> <li>- VTL 입국자 및 싱가포르 입국 기준 카테고리 1 국가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 면제(입국 후 24시간 이내 싱가포르 내 검사센터에서 감독자 입회 하 자가 ART 검사 시행)</li> </ul> </li> <li>○ 싱가포르-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간 무격리 관광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2.2.22~)</li> <li>○ 싱가포르-비탐섬 및 빈탄섬(인도네시아령) 간 무격리 관광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2.2.25~)</li> <li>○ 홍콩 여행자 싱가포르 무격리 입국 중단('21.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여행자는 VTL로 싱가포르 입국 가능('22.2.25~)</li> </ul> </li> <li>○ 싱가포르-이스라엘, 필리핀 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2.3.4~)</li> <li>○ 싱가포르 입국 모든 단기 외국인 방문자에게 전자 방문 패스 발급('22.3.11~)</li> <li>○ 저위험 국가 및 VTL 지역 입국자에 대한 ART 규정 완화(자가 검사로 대체)('22.3.15~)</li> <li>○ 싱가포르-베트남, 그리스, 인도 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2.3.16~)</li> <li>○ 싱가포르-말레이시아(페낭), 인도네시아(발리) 간 VTL 시행('22.3.16~)</li> <li>○ 백신 접종 완료 모든 여행자에게 싱가포르 무격리 입국 허용('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2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여부 무관 무격리 입국 허용('22.4.1~)</li> </ul> </li> <li>○ VTL 지정 항공편 폐지 및 백신 접종 모든 방문자 대상 입국 승인 절차 폐지('22.4.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입국 후 24시간 이내 ART 검사 폐지('22.4.1~)</li> <li>○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육로 완전 개방 (격리-PCR 검사 면제) ('22.4.1~)</li> <li>○ 말레이시아 육로 이용 싱가포르 입국자, 도착 입국 카드 작성 면제('22.4.15~)</li> <li>○ 입국 48시간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 폐지('22.4.26~)</li> <li>○ 말레이시아와의 육로 국경 이동 시, 버스 및 택시 이용 가능('22.5.1~)</li> <li>○ <b>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기항 크루즈 운영 재개('22.6.30~)</b></li> </ul>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단계의 이동제한명령(Recovery Movement Control Order, '20.6.10~8.31)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제외한 국내관광 전면 허용('20.6.7)</li> <li>○ 7월부터 테마파크/워터파크 영업 허가('20.6.30)</li> <li>○ 문화관광예술부, 국내여행활성화 캠페인 '큐티큐티 말레이시아' 실시 및 홍보 위한 5개 TV 광고 런칭('20.8.26)</li> <li>○ MATTA 여행 박람회 개최('22.4.9~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마단 기간 중 국내관광 버스 위주로 소규모 개최.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몰디브 NTO에서 참가.</li> <li>- 공사 및 각 여행사 부스에 한국여행에 대한 상담자 지속 방문. 단, 현 시점의 높은 항공료, PCR 검사 부담 등으로 실제 구매 및 방문은 하반기 이후에 고려하겠다는 의견 다수</li> </ul> </li> <li>○ 교통부, 국내 항공료 조사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국내여행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여론을 인식하여 조사 실시. 특히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 항공요금에 대해 집중 점검 예정.</li> </ul> </li> <li>○ 실외마스크 착용, 건물·상점 출입 시 바코드 인증, 사회적 거리두기 등 폐지('22.5.1~)</li> <li>○ 나이트클럽 등 기존 영업제한 업종 영업 허가('22.5.15~)</li> </ul>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일부터 말레이시아 상용 및 공무 출장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 Green Lane 실시('20.7.15)</li> <li>○ 정부, 2021년 2분기까지 외태관광객 입국 금지 가능성 언급. 각국 코로나19 2~3차 팬데믹에 따라 Green Lane 도입 재검토</li> <li>○ 인도네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합의('21.2.6)</li> <li>○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VTL 시행 합의('21.11.10)</li> <li>○ 싱가포르와의 VTL 티켓 판매 일시 중단('21.12.23~'2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상 최대 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수도권 지역 홍수 피해로 크리스마스 기간 여행객 감소 등 전반적인 여행 산업 침체 분위기 확산</li> </ul> </li> <li>○ 갠팅 크루즈 운항 개시('21.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낭 출발하여 근해 운항 후 페낭으로 귀환하는 무정박 크루즈 여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개시되는 크루즈 관광 운항</li> <li>-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크루즈 최대 승원의 50% 모객, 1박 또는 2박 일정으로 운항 예정</li> </ul> </li> <li>○ 교통부, 항공 입국객 대상 신속항원검사 대신 호흡기형 코로나19 검사 'breathalyers' 도입('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항원검사 소요시간(약 1시간) 대비 약 40분으로 검사시간이 단축되어 입국 소요시간 단축 가능</li> <li>* breathalyers : 음주측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호흡 시 바이러스양을 검사하여 확진여부 판단</li> </ul> </li> <li>○ 입국 전 여행자카드 발급 의무화('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카드는 백신접종 및 동선 추적 앱인 MySejatra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음성결과를 등록해야 앱을 통해 발급. 말레이시아행 항공편 탑승 전 제시</li> </ul> </li> <li>○ 방콕, 프놈펜 VTL 개시('22.3.15~), 싱가포르-페낭 VTL('22.3.16~) 개시</li> <li>○ '22.4.1일부터 엔데믹 돌입 및 국경 전면 개방 발표('22.3.9)</li> <li>○ 엔데믹 전환 유보, '22.4.1일부로 국경개방에 따른 관광객 입국 개시</li> <li>○ 말레이시아 관광공사(Tourism Malaysia) 해외 홍보활동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일부로 국경전면개방에 따라 두바이,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시장에서의 관광홍보 활동 재개. 4월 온라인관광박람회(싱가포르) 개최, 5월 초 두바이 개최 아라비안관광박람회 참가 등 활동 확대</li> </ul> </li> <li>○ 말레이시아 항공, 도쿄 하네다 노선 증설 운항('22.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본의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발표에 따라 기존 쿠알라룸푸르-나리타 오사카, 코타키나발루-도쿄에 이어 4번째 노선 복항</li> </ul> </li> </ul>
베트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 캠페인('20.6.1~연말) * 항공권, 호텔, 입장료 할인 등</li> <li>○ 하노이 시, "safe-friendly-quality-attractive" 캠페인 추진</li> <li>○ 다낭 시, "Danang Thank you" 캠페인 추진</li> <li>○ 대부분 국내선 운항 재개('20.6.4)</li> <li>○ 철도청, 휴가철 탑승권 4,600장 50% 할인 판매('20.6.22~7.8)</li> <li>○ 베트남항공, 7.22일 이후로 국내선 총 61개 노선 운영 계획. 국내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할인 프로모션 진행</li> <li>○ 베트남 호치민-다낭 국내선 항공 운항 재개('20.9.10)</li> <li>○ 베트남 항공 그룹, '21.3.28일부터 하노이 호찌민-꾸안달랏 등 전국 15개 공항지를 연결하는 30여개의 국내 항공 노선 확대</li> <li>○ '21.8월 현재 하노이 호찌민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을 연결하는 국내 항공 노선 중단</li> <li>○ 3개월 만에 국내선 노선 (하노이-호찌민) 재개('21.10.10)</li> <li>○ 22년 1월부터 한국 등 9개 국가와 정기 국제선 재개 예정(20년 3월 이후 최초)</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입국 일시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찌민 떼트넌 국제공항 21년 6.14일까지 외국인 입국 중단</li> </ul> </li> <li>○ 백신여권 시범지구로 지정된 푸꾸옥(Phu Quoc)섬 대상 트래블버블 추진 합의('21.8.4)</li> <li>○ 일부 국가와 국제선 운항 재개, ※ 단, 특별 목적 입국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21.9월~), 대만 및 일본(21.11월~)</li> <li>○ 미국 해외관광객 429명 백신관광 프로그램으로 호이안으로 입국 예정('21.11월)</li> <li>○ 한국인 관광객 200여명 푸꾸옥 4박5일 관광 시작('21.11.20)</li> <li>○ 22년 1월부터 한국 등 9개 국가와 정기 국제선 재개 예정(20년 3월 이후 최초)</li> <li>○ 22년 1월부터 입국 외국인 3일로 격리기간 단축 실시</li> <li>○ 22년 1월부터 거주증 소유 외국인 정부 격리 불필요</li> <li>○ 22년 3월 15일부터 관광전면 개방 (내외국민 모두 무격리)</li> </ul>
캄보디아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4분기 내 백신 접종 완료 외래객 대상 인바운드 관광 재개 예정</li> <li>- 백신 접종 완료자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도 허용, 상세 내용 미결정</li> </ul>
인도네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여객운송 제한 완화 : 50% → 70%</li> <li>○ 호텔업계, '20.7월부터 운영재개 계획 발표</li> <li>○ 발리, 국내관광 허용(7월말) 계획 발표</li> <li>○ 2단계 국내관광객 개방 발표('20.7.31)</li> <li>○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 진출입 시 신속항원검사 강제</li> <li>○ 자바 및 발리섬, '21.2.8일까지 지역 활동제한조치 시행</li> <li>○ '21.10.24(일) 0시부터 새로운 국내 이동 규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이동 : 백신 접종 증명서(최소 1차) 및 48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서 제시</li> <li>* 자바-발리 내 도시간 및 자바-발리 안팎 이동, Level 3-4 지역 이동 시 적용</li> <li>-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국립병원 소견서(백신 접종 불가 사유), 가족증명서 제시 및 PCR 검사 필요</li> <li>- 자바-발리 항공 이용시 PCR 검사 유효기간 48시간 → 72시간으로 공식 변경('21.10.27)</li> </ul> </li> <li>○ 연말연시('21.12.24~'22.1.2) 전국 Level 3 조치 철회 결정('2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이동 시 24시간 전 실시한 면역항체검사 결과 소지 요건 유지</li> <li>- 아이들도 여행가능하나, 항공 이용 시 72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서 제시 필요</li> </ul> </li> <li>○ 코로나19 대유행 2년 만에 크바란 귀향 연휴 연속 10일 지정('2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슬람의 종교적 금식기간인 '라마단' 기간이 종료됨을 기념하는 휴일이자 인도네시아의 최대 명절인 '크바란' 연휴를 코로나 유행 2년 만에 4.29~5.8일까지 연속 10일 간의 장기 휴일로 지정(4.29, 5.4, 5.5, 5.6은 유급휴가 대체일 지정)</li> </ul> </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7일 한-인니 비즈니스 출장 신속입국(Fast Track) 시행</li> <li>○ 싱가포르-인니 비땀빈탄섬 한정 출입 허용하는 코로나 통로(Corona Corridor) 시행</li> <li>○ 외국인 대상 '21.2.8일까지 입국 금지 조치 시행</li> <li>○ 말레이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21.2.6),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li> <li>○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입국 시, 격리 14일 적용('21.6.7 기준) * 타 국가 5일 격리 유지</li> <li>○ 발리, 외래 관광객 대상 국경 재개방('21.10.14~)</li> <li>○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Travel Corridor 개방 합의 ('21.11.10)</li> <li>○ 발리 응우라이 공항, 10개 국제노선 개항('22.3.31)</li> <li>○ 정부, 아세안 9개국에 무비자 입국 허용 및 43개국 대상 도착비자 발급 재개('2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이민국, 해외입국자의 관광 및 방문 목적을 위한 도착비자 발급 정책 범위 확대</li> </ul> </li> <li>○ '22.3월 국제여객 입국자수 총 53,355명(자국민 43,032명, 외국인 10,323명)에서 4월 1~11일 간 총 76,281명(자국민 61,970명, 외국인 14,311명)으로 입국객 증가 추세</li> <li>○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 대상 모바일 앱(PeduliLindungi)과 웹사이트(<a href="https://vaksinln.dto.kemkes.go.id/">https://vaksinln.dto.kemkes.go.id/</a>)를 통해 백신접종 사실 입력 가능('22.4.15~)</li> <li>○ 인니 중앙통계청 발표, 22년 3월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40,800명 집계('2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대비 121.02%, 전년 동기 대비 206.25% 증가</li> <li>- 22년 4월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111,060명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99.01%, 전월 대비 172.27% 증가)</li> </ul> </li> </ul>
필리핀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2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li> <li>○ 팔라완섬 엘니도 국내관광 재개</li> <li>○ 국내선 항공 정상화를 위한 코로나19 항원 음성검사 의무화 채택 예정</li> <li>○ '20.10.1일 보라카이섬 국내관광 재개(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li> <li>○ 지역사회 여행업 영업 재개 허용, 정원의 50% 이내 운영 가능</li> <li>○ 오미크론 확산 및 3만명대 확진자 급증과 항공사 직원 등의 감염과 여행 수요 급감으로 일부 국내외 항공기 운항 취소('22.1.12)</li> <li>○ 오미크론 확산 및 3만명대 확진자 급증과 항공사 직원 등의 감염과 여행 수요 급감으로 일부 국내외 항공기 운항 취소('22.1.12)</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2.26일부터 은퇴비자유호비자(2020.3.20 이전) 소지 외국인의 입국 허용 등 외국인 대상 필리핀 입국 금지조치 완화</li> <li>○ '21.4.21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령 발표</li> <li>○ 오미크론 신종 변이 유입우려로, 12.1일로 예정된 그란국가로부터의 외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전면 중단 발표(21.11.28)</li> <li>○ 오미크론 발생 16개국* 대상 입국 전면 금지(~21.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지역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해당지역 방문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li> <li>*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오스트리아,</li> </ul> </li> </ul>

		<p>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p> <p>○ 오미크론 발생 적색리스트(필리핀 입국 전면 금지) 6개국 발표(22.1.1~1.15)</p> <p>* 적색리스트 국가 :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페인 등 6개국</p> <p>○ 필리핀 무비자 관광객 입국 조건부 허용 방침 발표</p> <p>- ('22.2.10일부)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 조건부 허용</p> <p>* 코로나19 발생전 인정한 필리핀 도착 시 무비자로 30일 이하 체류가능 국가 국민(한국 포함 157개국)</p> <p>- ('22.2.1일부) 필리핀 인정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소지자 시설격리 면제</p> <p>* 한국-필리핀 백신접종 상호인정 발표('22.2.10)</p> <p>○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 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허용('22.3.11~)</p> <p>○ 4.1일부터 157개 무비자 국가 이외 비자발급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22.3.25)</p> <p>○ 필리핀 입국 국제선 승객수 제한 해제('22.4.1~)</p> <p>○ 무비자 입국 허용('22.2.10~3.18) 이후 15만 1,332명 외국인 관광객 입국</p> <p>- 일평균 3,200명 가량으로 당국은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 시 팬데믹 이전의 53% 수준인 12천명 정도로 증가 기대</p> <p>* 주요 입국현황(3.28 기준) 미국(33,310명), 캐나다(7,305명), 영국(6,626명), 한국(5,790명) 등</p> <p>○ 무비자 입국 허용('22.2.10~4.7) 외국인 관광객 20만 2,700명 누적 입국</p> <p>- 일평균 3,556명 가량으로 당국은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 시 팬데믹 이전의 53% 수준인 12천명 정도로 증가 기대</p> <p>* 주요국 입국자 현황 : 미국(43,744명), 캐나다(9,618명), 영국(9,315명), 한국(8,440명) 등</p> <p>○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접종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와 여행자보험 제출 면제('22.5.30~)</p>
인도	국내	<p>○ '20.5.25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p> <p>○ '20.7.6일부터 전국 주요 유적지(타지마할 제외) 재개방 발표</p> <p>○ 관광부장관, 국내여행 활성화에 집중한 정책을 펼칠 예정임을 발표('20.8.27)</p> <p>○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여행 제한 완화</p> <p>- 백신접종 완료 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면제(세부, 보홀 등 11개 지역)</p>
	인바운드	<p>○ '21.4.19일 기준 28개국과 에어버블 체결</p> <p>*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UAE, 카타르, 몰디브, 일본, 바레인,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부탄, 케냐, 오만,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नेपाल, 러시아, 세이셸,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p>
	아웃바운드	<p>○ 인도인 관광객 허용 국가 현황</p> <p>* 총 9개국('21.3.16 기준) : 몰디브, 루마니아, 러시아, 이집트, 케냐, 우크라이나, 바레인, नेपाल, 터키</p> <p>○ 정기 국제선 운항 재개('22.3.27~)에 따라 66개 항공사, 주간 3,249편 운항 승인</p> <p>- 인도 항공사(67개) : 27개국 운항 (주당 1,466편)</p> <p>- 해외 항공사(60개) : 22개국 운항 (주당 1,783편)</p> <p>* 중국, 한국은 운항승인 목록에서 제외</p>
UAE	국내	<p>○ 쇼핑몰, 관광지 등 정상 운영</p> <p>* 단,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p> <p>○ MICE, 공연 등 행사 개최 가능</p> <p>* 단, 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들로 제한</p> <p>○ '22.3.1일부터 아외 마스크 미착용 및 UAE 입국 시 PCR 검사 불필요</p>
	인바운드	<p>○ '20.7.7일부터 두바이 인바운드 관광 재개</p> <p>*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제출 시 자기격리 면제</p> <p>○ '20.8.5일부터 한-UAE 간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p> <p>○ '20.12.24일부터 아부다비 인바운드 관광 재개, 관광객 입국 허용</p> <p>○ 아부다비 입국 시 자기격리 면제 대상 국가(Green List) 업데이트, 한국 포함 총 28개국('21.6.18)</p> <p>○ 바레인(5.10), 세이셸(5.13), 세르비아(5.15), 그리스(5.18)와 Travel Corridor 체결</p> <p>* Travel Corridor 체결국 출발 입국자 중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격리 없이 여행 가능</p>
	아웃바운드	<p>○ 백신 접종 완료 UAE 국민(거주자), 거주주 등 주요 목적지로 자기격리 없는 해외여행 가능</p>
쿠웨이트	아웃바운드	<p>○ 정부, 9.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모든 사회활동 해외여행 허용('21.8.3)</p>
사우디 아라비아	인바운드	<p>○ 입국 금지 조치 이후 17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21.8.1)</p>
터키	국내	<p>○ '20.5.28일부터 국내관광 재개</p> <p>○ 터키 내 14개 도시간 항공 운항 재개(6.18) 계획 발표('20.6.2)</p> <p>○ 문화관광부, 7.1일부터 모든 관광시설 영업 재개('20.6.11)</p> <p>○ 백신3차 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여도 격리 의무 없음('22.1.12)</p> <p>○ 백신 미접종자 PCR 결과 제시 없이 시설출입 가능('22.1.15)</p> <p>- 단, 항공편 탑승 시는 여전히 필요</p> <p>○ 코로나 방역 관련 대부분의 제한 해제('22.3.2)</p> <p>- 마스크 착용 : 실외 불필요, 실내도 환기가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불필요</p> <p>- 방역패스(HES Code) 폐지. 시설에 자유로운 입장 가능</p> <p>- 코로나 증상이 없을 경우 PCR 검사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 확진자만 격리, 같은 학급 학생들은 격리 없이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li> <li>○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을 제외한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22.4.2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6월 중순부터 국제관광 재개</li> <li>○ 유럽 6개국(6개 도시) 항공 운항 재개(6.18) 발표('20.6.2)</li> <li>○ 9개국 36도시로부터 전세기 입항 시작(7월 1주차 우크라이나발 전세기 탑승객 1만 명 입국)</li> <li>○ 터키 안탈리아에 일 1만 명 외래관광객 도착('20.7.20)</li> <li>○ 유럽 주요국가(영국, 독일 등) 터키를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li> <li>○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정기 항공편 일시 중단('21. 5. 17 ~ )</li> <li>○ 여행 성수기 시즌(7~8월) 터키 주요 인바운드 여행지 '안탈리아' 숙박시설 예약률 70% 달성</li> <li>○ 인도네시아 대상 비자 면제. 인도네시아 국민은 30일 간 비자 없이 터키 방문 가능('21.12월~)</li> <li>○ 터키-불가리아 간 관광 재개('22.1.20)</li> <li>○ 이스탄불공항 환송, 환영 인원 출입 제한 해제('22.2.1)</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터키 오렌지색→녹색 국가로 하향 조정('22.3.31~)</li> <li>- 터키 거주자,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완치 증명서 제출 시 프랑스 여행 가능</li> </ul>
카자흐스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부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5인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 1인 유치시 15,000 텡게의 여행사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21.6.21)</li> <li>○ 카자흐스탄 민간 항공위원회, 2021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항공 여객 수송 실적 발표 ('2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선 3,488,675명, 국제선 484,475명. 올해 말까지 여객 수송량 9,093,022명 예상</li> </ul> </li> <li>○ 카자흐스탄 항공사 작년 대비 승객수 2배 증가 ( '21.8.18) * 2021년 7개월 결과 승객수 510만명</li> <li>○ 카자흐스탄 관광업계 직원 수 작년 대비 22.2% 감소, 7백명으로 기록('21.8.24)</li> <li>○ 2021.1~6월 기간 내 스포츠, 문화, 관광 분야의 국가 예산은 작년 대비 2.6% 감액 ('21.8.27)</li> <li>○ 카자흐스탄 수석 위생 의사의 새로운 명령서에 따르면 철도 운행 시, 문이 있는 객실 칸 이용만 가능하다고 발표('21.9.10,gov.kz)</li> <li>○ 카자흐스탄 여행사, Kids Go Free 프로젝트 국내 관광 상품 100건 이상 판매 시작 ('22.3.28 ,tengritravel.kz)</li> <li>○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여행사를 위해 Kids Go 프로젝트 구비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계획 중('22.4.29)</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개 국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 진행 가능성 및 러시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우즈베크, 독일, 몰디브, 한국, 폴란드 헝가리 등 16개국과의 항공 교통이 재개 및 증편 될 예정이라고 발표('21.9.22)</li> <li>○ 21.12.16일부 예오아스타나 항공사, 알마타-델리 정기노선 재개 예정(주 3회, 화,목,토)</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 비상사태 선포 이후('22.1.5~19) 잠정 중단 정기 노선 운항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카타르/카자흐스탄-UAE/카자흐스탄-러시아 노선</li> </ul> </li> <li>○ Lufthansa 항공사는 프랑크푸르트-누르술탄/알마티 정기노선 재개 예정(각각 주 2회) ('22.2.7~)</li> <li>○ 이집트 정기노선 재개 예정 (2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11월부터 이집트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됨에 따라 정기노선 잠정 중단됨</li> </ul> </li> <li>○ 그리스,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입국 사증 발급 시작('22.2.9)</li> <li>○ 누르술탄-아부다비 정기노선 재개('22.2.14~)</li> <li>○ 알마티-베트남 푸꾸옥 정기노선 재개('22.3.19~)</li> <li>○ '22.3.1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이 이탈리아 입국 허용, 단 EMA 인정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또는 항체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2.25)</li> <li>○ '22.5.30 현재 국제노선 운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UAE (주38회)</li> <li>- 카자흐스탄-조지아 (주22회) - 카자흐스탄-러시아 (주97회)</li> <li>- 카자흐스탄-독일 (주11회) - 카자흐스탄-태국 (주3회)</li> <li>- 카자흐스탄-몰디브 (주4회)</li> <li>- 카자흐스탄-이집트 (주12회)</li> <li>- 카자흐스탄-영국 (주2회, '22.5.12~) - 카자흐스탄-몽골 (주2회, '22.3.16~)</li> <li>- 카자흐스탄-이집트(후르가다) (주 1회, '22.5.31~)</li> <li>- 카자흐스탄-그리스 (주3회, '22.6.1~)</li> <li>-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주9회) -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주4회)</li> <li>- 카자흐스탄-조지아(바투미) 직항노선 신규 개시 예정('22.6.3~)</li> <li>- 카자흐스탄-이탈리아(밀라노) 직항노선 신규 개시 예정('22.6.12~)</li> <li>- 카자흐스탄-터키, 현 주 49회에서 주 124편으로 직항노선 2배 증편('22.5.13~)</li> <li>-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주40회)</li> </ul> </li> <li>○ 러시아 항공사 Uralsk Avialines, 러시아-카자흐스탄 직항노선 잠정 중단(~'22.10.29)</li> <li>○ Air Astana, 누르술탄-프랑크푸르트 직항 노선 주 6편까지 증편( '22.5.15~)</li> <li>○ Air Astana, 몬테네그로 직항노선 주 4회 재개 예정('22.6.1~)</li> </ul>
몽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 코로나19 확산 예방 몽골 전통 설날(차강차르) 대규모 행사 개최 금지 지시('21.12.22)</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일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관련 조사 중</li> <li>○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해외입국자 대상 시설 격리 면제, 백신 접종 받지 않았을 경우 시설 격리 기간 7일('21.4.3)</li> <li>○ '21.6.1일부터 항공 노선 재개 관련 검토 중('21.5.27)</li> <li>○ '21.6.1일부터 국경 봉쇄 해제('21.6.1)</li> <li>○ '국경 재개방 및 관광객 입국 재개 발표('22.2.14)</li> <li>○ 5월 15일부터 방통 한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 예정('22.4.28)</li> <li>○ 6.1일부터 방통 한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22.5.9)</li> <li>○ 몽골자연환경관광부, 한국에서 여행설명회 개최 및 몽골 관광 홍보 추진('22.5.16)</li> <li>○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몽골-중국 사이의 국경세관 시베후렌-세히(광물 운송) 영업 재개('22.5.26~)</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항공 재개 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만 출국 가능('21.4.8)</li> <li>○ 항공편 운항 재개 기간을 6월 초까지 연기 및 점진적 항공 정기편 재개 예정('21.5.5)</li> <li>○ '21.6.1일부터 국경 봉쇄 해제('21.6.1)</li> <li>○ '22.6.1일부터 방한 관광 비자 발급 재개('22.5.19)</li> </ul>
미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현대미술관 재개관(8.29)</li> <li>○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 국내여행 홍보캠페인 'Let's go there' 출범('20.9.8)</li> <li>○ 미 CDC, 크루즈 항해금지 명령 해제, 조건적 크루즈 운항 허용(10.31)</li> <li>○ 카니발·디즈니 크루즈 라인, 5월까지 모든 크루즈 운항 중단</li> <li>○ 미 CDC, 크루즈 터미널 및 선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2.2)</li> <li>○ 뉴욕시 식당 실내영업 재개(2.12~) * 최대 수용인원의 25% 제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li> <li>○ 뉴욕주 실내외 경기장·공연장 2.23일부터 제한적 입장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의 10%로 입장 제한</li> </ul> </li> <li>○ 경기, 공연 관람 72시간 내 검사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li> <li>○ 뉴욕주 놀이공원 및 실내 가족 휴양시설 제한적 재개장('21.3.26)</li> <li>○ 하와이주, 주민 대상 섬간 이동을 위한 백신여권 도입(3월)</li> <li>○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메이저리그 야구장 및 디즈니랜드 재개 제한적 허용(4.1~)</li> <li>○ 뉴욕주, 4월부터 국내 이동 의무격리 해제</li> <li>○ 아루바 정부, 젯블루 항공 이용 입국 시 백신여권 도입('21.3.16~)</li> <li>○ 미 CDC,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국내여행 가능 발표('2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국내여행 가능</li> </ul> </li> <li>○ 텍사스주, 주기관 등에 백신 여권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 시행</li> <li>○ 백악관 대변인, 미 연방정부 공인 백신여권 미발행 발표('21.4.6)</li> <li>○ 미 CDC, 백신 접종자 탑승 시 크루즈 운항 재개 조건 완화('21.4.28)</li> <li>○ CDC, 백신 접종자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가능 발표('21.5.13)</li> <li>○ 뉴욕 식당, 상점 등 실내외 인원제한 해제('21.5.19)</li> <li>○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백신여권 도입 검토 발표('21.5.28)</li> <li>○ 캘리포니아주 규제령 해제 및 경제 전면 재개('21.6.15)</li> <li>○ 뉴욕주 규제령 해제 및 경제 전면 재개('21.6.15)</li> <li>○ 셀레브리티 크루즈사 크루즈 운항 첫 재개('21.6.26)</li> <li>○ 뉴욕시 관광청, 뉴욕시 관광 홍보 TV 캠페인 개시('21.7.8)</li> <li>○ 시카고, 정상화 1달여 만에 여행주의보 재발령('21.7.16)</li> <li>○ 미 국무부, 영국 여행경보 최고 4단계 '여행금지' 격상</li> <li>○ 백악관, '국제여행 제한 당분간 유지' 발표('21.7.26)</li> <li>○ 뉴욕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식당 등 실내시설 이용 제한 발표</li> <li>○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 백신접종 의무화('21.8.23)</li> <li>○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 타임스퀘어 새해 축하 행사 '볼드롭' 재개(21.11.16)</li> <li>○ 교통안전청(TSA),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22.1.18)</li> <li>○ 확진자 수 폭발적 증가로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 대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완료자 15,000명만 입장 가능</li> </ul> </li> <li>○ 캘리포니아주,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계획 발표('2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 명 이상 모이는 실내 대형 행사 참석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야외행사에는 백신 접종 증명은 필요 없으나 마스크 착용과 음성 확인서가 권장됨</li> </ul> </li> <li>○ 디즈니랜드, 마스크 의무화 해제('22.2.17)</li> <li>○ LA, 백신 접종 완료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22.2.25~)</li> <li>○ 뉴욕시, Key to New York(백신접종 증명 의무화) 폐지(22.3.7)</li> <li>○ 미국, 50개주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22.3.26)</li> <li>○ 필라델피아, 코로나 재확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22.4.11)</li> <li>○ CDC,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5.3.까지 연장(22.4.13)</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6.8)</li>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로 하향 조정(11.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26일부터 미국행 여행객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 필수</li> <li>○ '21.1.25일 남아공 · 영국 · 아일랜드 등 26개국 입국 금지 지속 발표</li> <li>○ 미국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 계획 발표( '21.1.21), 세부 지침 향후 발표 예정</li> <li>○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백신여권 도입 검토 발표( '21.5.28)</li>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최저 단계인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Exercise Normal Precautions)' 로 하향 조정( '21.6.8)</li> <li>○ 미 국무부, 프랑스 · 이스라엘 · 태국 · 아이슬란드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에스와티니 · 아루바 7개국을 4단계 여행금지에 추가( '21.8.9)</li> <li>○ 미 국무부, 캐나다 여행권고 3단계 '여행 재고' 로 격상( '21.8.31)</li> <li>○ 미 C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및 괌 여행경보 4단계 '아주 높음' 으로 격상( '21.8.31)</li> <li>○ 11월부터 백신접종완료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외국인 입국 허용으로 여행제한 규정 변경안 발표( '21.9.20)</li> <li>○ 미 CDC, 18세 미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외국인 아동 입국 시 7일 자가격리 의무 부여 철회( '21.10.30)</li> <li>○ 미 CDC, 뉴욕주 내에서 캐나다 백신 여권을 접종증명서로 인정( '21.11.17.)</li> <li>○ 남아프리카 지역 8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발 비시민권자 입국 금지 발표( '21.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가 여행금지 권고 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li> </ul> </li> <li>○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 '21.11.30)</li> <li>○ 백신 접종 여부 무관 해외 입국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검사 유효기간, 기존 탑승 전 3일 내에서 탑승 전 1일로 단축( '21.11.30~)</li> <li>○ 하와이, 부스터샷 접종완료 해외 여행객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허용 예정</li> <li>○ 하와이, 인바운드 해외여행객에 부스터샷 요구하지 않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도착 14일전 접종완료 필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가 있는 여행자들은 5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음</li> </ul> </li> <li>○ CDC, 크루즈 관광정책 여행경보 4→3단계로 완화( '22.2.16)</li> <li>○ 뉴욕 브로드웨이, 마스크 의무화 5월 31일까지 연장(22.4.15)</li> <li>○ 연방법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무효 판결(22.4.19)</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부,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 '21.7.26)</li> <li>○ CDC, 유럽 3개국(체코 · 헝가리 · 아이슬란드) 코로나19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 '21.11.15~)</li> <li>○ CDC, 프랑스요르단포르투갈탄자니아 대상 여행경보 최고등급 4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li> <li>○ CDC, 3개국(이탈리아, 그린란드, 모리셔스) 여행위험국 추가 지정</li> <li>○ CDC, 오미크론 확산에 스페인 등 8개 국가 여행경보 4단계로 상향조정( '21.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차드, 핀란드, 보나이어, 지브랄타, 레바논, 모나코, 산 마리노 등 8곳을 최고등급인 4단계로 상향 조정</li> <li>- 한국은 계속 3단계 유지 중</li> </ul> </li> <li>○ CDC, 오미크론 확산에 스웨덴 · 몰타 · 몰도바 여행경보 4단계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는 3단계로 상향조정</li> </ul> </li> <li>○ 바이든 정부, 남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철회( '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해제 대상은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 해당</li> </ul> </li> <li>○ CDC,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여행경보 상향조정( '2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리비안 휴양지 아루바 여행경보 4단계로 상향조정</li> <li>- 크루즈선에 대한 코로나19 여행경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조정</li> <li>- 캐나다와 카리브해 남단 네덜란드령 퀴라소섬 여행경보 4단계로 상향조정</li> </ul> </li> <li>○ CDC, 아르메니아 · 벨라루스 · 레소토 · 짐바브웨 여행경보 기존 4단계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 로 하향조정</li> <li>○ CDC, 콜롬비아 · UAE 등 15개국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타리카, 피지, 과들루프, 자메이카, 쿠웨이트, 몽골리아, 니제르, 페루, 로마니아, 생바르텔레미, 세인트 마틴,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UAE, 튀니지 등 15개국을 최고등급인 4단계로 격상</li> </ul> </li> <li>○ CDC, 브라질 · 싱가포르 등 12개국 여행경보 4단계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앵골라, 벨로루시, 브라질, 에콰도르, 코소보, 멕시코, 몰도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등 12개국을 4단계로 상향조정</li> </ul> </li> <li>○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재고' 에서 '여행금지' 인 4단계로 상향 조정( '22.2.14)</li> <li>○ 노르웨이로인 크루즈라인, 마스크 의무화 폐지 및 코로나19 백신 미접종한 5세 미만 어린이 크루즈 탑승 허용( '2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 승객들은 더 이상 승선 전에 부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신 미국 내 항구에서 탑승하기 이틀 전 혹은 미국 외 항구에서 탑승 3일 전에 받은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함</li> </ul> </li> </ul>
캐나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캐나다, 지역노선 수십개 운항 중지 발표</li> <li>○ 대서양 연안 4개 주로의 여행제한(업무, 의료, 생필품 조달 목적은 예외)</li> <li>○ 트래블버블(대서양 연안 4개 주) 방문 시 4개주 이외 지역에서의 방문자는 2주 격리. 4개 주 간에는 자유 이동</li> <li>○ 온타리오주, 이웃하는 타주(퀘벡, 마니토바주)와의 이동 재개 발표( '21.6.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목적 방문이 아닌 경우에도 육로 및 수로 경계 개방. 격리 불필요</li> <li>○ 대서양 연안 4개주, 다른 주 거주 캐나다인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14일 자가 격리 의무시행( '21.7.25 기준)</li> <li>-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 면제조치 (단,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함.)</li> <li>○ 12세 이상 국민의 항공, 기차 탑승 시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21.12.1~)</li> <li>- 국내, 국경 통과 혹은 캐나다 출발 모든 항공 국제여객</li> <li>- VIA Rail, Rocky Mountaineer 기차 탑승객</li> <li>○ 22년부터 온타리오 주 내부에서 여행 혹은 휴가 시 1인당 1천 달러, 가족당 최고 2천 달러 세금 신고시 최고 200달러(가족은 400달러)의 세금 혜택</li> <li>-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동 세금 리베이트 프로그램 운영</li> <li>- '22.12.31까지 위 해당 주민에 대해 숙박비의 20%까지 환불</li> <li>○ 최저가 항공사 'Lynx Air', 4.7일 첫 비행 목표로 영업 개시( '22.1.19)</li> <li>-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킬로나, 위니펙 운항 계획</li> <li>- 밴쿠버-토론토 구간 항공요금 79달러</li> <li>- 링스항공 운항 개시로 웨스트젯, 에어트랜젯 등 중저가 항공사 간 가격 경쟁 심화 전망</li> <li>○ 웨스트젯항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 추가 운항 중지 발표('22.2.7)</li> <li>○ 캐나다 각 주정부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22.2월~)</li> <li>- (온타리오) 백신패스 폐지(3.1), 실내인원 제한 해제(2.17)</li> <li>- (앨버타) 마스크 착용 규정 해제, 실내인원 제한 해제(3.1)</li> <li>- (브리티시컬럼비아) 실내인원 제한 해제(2.17)</li> <li>- (매니토바) 실내인원 제한 해제(2.15), 백신패스 폐지(3.1), 마스크 착용 규정 해제(3.15)</li> <li>- (뉴브런즈윅) 실내인원 제한 해제(2.19)</li> <li>- (사스캐추완) 백신패스 해제(2.14), 마스크 착용 규정 해제(3.1)</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국경 폐쇄(외국인 입국 규제) 유지(' 20.3.18~)</li> <li>○ 캐나다-미국 육로국경 봉쇄(' 20.3.21~ '21.9.21) * 필수목적 국경통과로 제한(식품, 의약품, 기타 중요 품목 유통) * 미국인의 캐나다 입국은 허용( '21.8.9~)</li> <li>○ 모든 해외입국자(자국민 포함) 코로나19 증상에 관계없이 14일 의무 자가격리(' 20.4.1~)</li> <li>○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20.11.21~)</li> <li>○ 모든 입국자(자국민 포함, 5세 이상)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21.1.7~)</li> <li>* 도착 14일~90일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됨</li> <li>○ 모든 입국자에 입국 시 PCR 테스트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 의무격리(3일), 검사결과 음성 시 자택 격리, 양성 시 정부지정 시설서 격리( '21.2.22~)</li> <li>- 공항도착 시 PCR검사 후 격리 8일차에 PCR자가검사( '21.4.23~)</li> <li>* 기존 : 격리 10일차에 검사(도착 시 받은 검사키트 활용, 검사 후 연구소로 송부)</li> <li>○ 4개 공항으로 국제선 운항 제한(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li> <li>○ 육로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21.2.15~)</li> <li>○ 인도발 항공기 입항금지('21.4.22~'9.26), '21.9.27부터 운항 개시</li> <li>○ 캐나다 입국규제 완화 1단계시행( '21.7.5.자정부터)</li> <li>- 백신접종완료자 3일 호텔 격리 포함 14일 격리면제, 도착 8일차 검사면제</li> <li>- 대상자 한정(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기존 입국 가능 일부대상자)</li> <li>○ 21.8.9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 미국인 대상)( '21.7.19발표)</li> <li>○ 21.9.7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캐나다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자 대상)( '21.7.19발표)</li> <li>- 입국 최소 14일전 화이자, 모더나, AZ 백신 2회 접종 완료, 안센백신 1회 접종완료</li> <li>- 공식 백신접종증명서(영, 불) 제시 및 ArriveCAN 포털 혹은 앱에 제시</li> <li>- 백신접종 완료자의 12세 미만 동반자녀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li> <li>-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면제, 입국 8일째 중간 검사도 면제</li> <li>- 단, 백신접종 완료자 중 무작위 선별 코로나 검사 진행</li> <li>- 3일간 호텔격리 해제</li> <li>- 국제선 공항 5곳 운항 재개(헬리팩스, 퀘벡시티, 오타와, 위니펙, 애드먼튼)</li> <li>*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은 기존 운항</li> <li>-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14일 격리 적용</li> <li>○ 에어캐나다 캐나다-인도 항공노선 재개('21.9.27~)</li> <li>○ 캐나다, 오미크론 변이 방지목적으로 아프리카 7개 지역 방문 외국인 여행객 입국 금지(21.11.26~12.18)</li> <li>- 또한 과거 2주 동안 남아프리카 지역 여행 모든 캐나다 국적자 대상 코로나 진단 의무화(음성판정 때까지 격리)</li> <li>○ 나이지리아, 말라위, 이집트발 여행자 입국 금지리스트 추가('21.11.30~12.18)</li> <li>○ 미국 제외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즉시 PCR 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까지 격리. 결과 음성 판정 즉시 격리 해제( '21.11.30~)</li> <li>- 백신 미접종자는 도착 시 14일 격리 및 8일차 검사 동일</li> <li>○ 뉴펀들랜드 섬, 여행제재 강화(' 21.12.21~)</li> <li>- 백신접종완료자도 입도 시 5일 자가격리, 격리기간 동안 매일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자가격리 종료</li> <li>○ 해외입국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수용 등 입국규제 완화( '22.2.28~)</li> <li>○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입국 전 코로나 검사 규정 해제( '22.4.1~)</li> <li>○ 에어캐나다,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일 10만명 이상 탑승객 기록</li> <li>○ 해외 입국 규정 변경( '22.4.25~)</li> <li>-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4일간 접촉자 및 방문장소 리스트 작성 의무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 도착 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실시. 도착 72시간 이내 ArriveCAN 제출 필요</li> <li>- 백신 미접종·부분 접종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8일차 코로나19 검사 필수</li> <li>-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격리계획서 제출 불요. 단, 백신 접종 완료 보호자 동반 필수</li> <li>○ 국경관리국, 22.4월 마지막 주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한 46만명 입국 발표</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모든 비필수(non-essential) 목적 해외여행 자제 권고(20.3.14~)</li> <li>○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크루즈여행 금지</li> <li>○ 하와이, 캐나다인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시 2주 격리 면제</li> <li>* 20년 11월 캐나다인 하와이 방문객 약 5천명</li> <li>○ '20.1월~10월 해외여행 860만건 ('19 동기 2,820만건 대비 69% 감소)</li> <li>○ 모든 Sun Destinations(멕시코와 모든 카리브해국) 여행금지 및 항공편 금지(1.31~4.30)</li> <li>○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인의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여권 도입 발표(21.8.11 발표)</li> <li>○ 21.11.8일부 캐나다인의 미국으로의 육로·해로 입국 허용</li> <li>- 캐나다인 백신 교차 접종자(약 400만 명)도 입국 허용)</li> <li>○ 캐나다 여행주의보(Travel Advisory) 변경(21.10.21)</li> <li>- 비필수여행금지 해지 및 해외여행 최소 14일 전 백신 접종 완료 권고로 대체</li> <li>- 크루즈 관광 전면 금지(Avoid all cruise ship travel)는 유지</li> <li>○ 캐나다, 주정부 백신증명서 디자인 표준화한 백신여권 공개(21.10.21)</li> <li>- 백신여권 없으면 21.11.30일부터 비행기 탑승 불가</li> <li>○ 캐나다 여행주의보(Travel Advisory) 변경(21.12.15)</li> <li>- 비필수여행금지(Avoid non-essential travel) 재발령(4주간)</li> <li>- 크루즈관광 전면 금지(Avoid all cruise ship travel)는 유지</li> <li>○ 단기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모든 자국민 대상 캐나다 입국 전 Molecular test (PCR 테스트 등) 실시 의무화('21.12.21~)</li> <li>○ 웨스트젯 항공, 국제선 수요감소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승무원 부족으로 2월 중 항공편 20% 감축 발표(22.1.19)</li> <li>○ 캐나다 저가항공 '스우프(Swoop)' 22년 여름 미국 직항노선 취항 예정</li> <li>○ 해외여행관련 위기관계를 3단계(Avoid non-essential travel)에서 2단계(Practise special precautions)로 하향 조정(22.2.27)</li> <li>○ 대한항공, 캐나다 교포 모국 방문 폭증으로 토론토-인천 특별기 편성</li> <li>- 4월 전좌석 매진으로 방한기회를 놓친 교포 수요 반영 추가 편성(4.29일 출발)</li> <li>- 한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재개 발표 이후 캐나다 한인 여행사 측 문의 폭주 중</li> <li>○ 러시아영공(북극항로) 폐쇄로 토론토-인천 비행시간 1시간 연장(기존 13시간&gt;14시간)</li> </ul>
호주	국내	○ 현재 호주 내 각 주별 지역간(interstate) 이동제한조치 및 격리조치 없음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입국제도</li> <li>- 국적 관계없이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 입국 허가</li> <li>- 입국 전 디지털 여행신고서(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작성</li> <li>○ 해외로부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제도</li> <li>-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완전 폐지</li> <li>-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주·준주 정부 규정에 따라 상이</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콰타르 항공사, 런던·로스앤젤레스 등 국제선 운항 재개('21.11.1~)</li> <li>- 11.1일 런던·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싱가포르(11.23), 델리(12.6), 밴쿠버(12.18), 도쿄(12.19), 호놀룰루(12.20), 요하네스버그('22.1.5), 푸켓('22.1.12), 방콕('22.1.14) 노선 운항 순차 재개 예정</li> <li>* 단, 백신 접종 완료 호주인,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에 한해 해외여행 가능</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인구 10만명 당 일주일간 신규확진자수 100명 이상시 야간통행금지, 접촉자수 제한 등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브레이크 도입이 가능한 감염방지법 개정</li> <li>○ 코로나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대상 일부 봉쇄조치 해제(5.8일부터)</li> <li>○ 바이에른주 5.21일부터 호텔 숙박업소 캠핑장 재개, 베를린 5.24일부터 일부 봉쇄 해제 등 일부 주 5월 중 봉쇄해제 시도</li> <li>○ 코로나19 대응 비상브레이크 6.30일 종료. 최근 7일간 신규 확진자 수에 따른 봉쇄 단계에 따라 봉쇄령 완화. 단, 실내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일부 방역 지침 의무</li> <li>○ 작센주, 봉쇄령 실시('21.11.22~12.22)</li> <li>- 최근 발병률 급증으로 인해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대상 봉쇄령 실시.</li> <li>- 1 가구당 외부인 1명만 접촉 가능. 16세 이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는 외부인 수에 해당되지 않음</li> <li>- 크리스마스마켓 등 주요 행사 및 스포츠시설 폐쇄. 필수 소매점 및 미용실 대상 2G 규칙 적용 및 그 외 신체 접촉 서비스업 일체 폐쇄. 직장 및 종교시설은 3G 규칙을 적용하며,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또는 규정에 부합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필수</li> <li>○ 작센주, 새로운 코로나19 비상조치 시행 선포에 따라 2G 규칙하에서 여행사 재개장 가능('22.1.14)</li> <li>○ 헤센주, 소매상점 대상 2G-규칙 종료 등 점차적인 코로나19 제한 완화('22.2.7~)</li> <li>○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2G-규칙 종료 등 점차적인 코로나19 제한 완화('22.2.9~)</li> <li>○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코로나19 완화정책 2월 말 발표</li> <li>○ 하트스팟 규정 도입, 코로나 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22.3.20~9.23)</li> <li>- 단, 요양시설, 병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유지</li> <li>○ 무료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규정 연장('22.3.31~6.30)</li> </ul>
	국내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일부터 2주간 통계에 의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경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여행 주의 등 3단계로 발령</li> <li>*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단계 해당</li> <li>○ 2021.1.1.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모든 여행목적 체류 가능</li> <li>○ 변이 바이러스 위험지역 출발 운송 금지</li> <li>○ 벨기에·그리스·네덜란드 등 코로나19 고위험지역 발령( '21.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질병청(RKI), 11.21일부로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를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입국자는 디지털 입국 신고서 신청 의무</li> <li>* 단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완치자가 아닌 경우, 10일 자가격리 의무이나 5일 후 재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조기격리 해제 가능</li> <li>** 고위험지역으로 분류 시 여행경고가 자동 발령되나 여행 금지는 아님</li> </ul> </li> <li>○ 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 고위험국가지정 및 관광객 입국 제한(21.12.19~)</li> <li>○ 자가격리 의무화 폐지 (22.5.1)</li> <li>○ <b>코로나 출입국 제한규정(백신접종·회복·음성결과 증명 요구) 중단 (22.6.1)</b></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대상 고위험 지역 지정( '21.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유로존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오스트리아 11.11일 기준 인구 10만명 당 발병율 751명), 3개국에 방문한 백신 미접종자 여행객은 귀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li> </ul> </li> <li>○ 모든 해외 여행 경고 해제 (22.3.3~)</li> </ul>
스위스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전 PCR 검사 의무화( '2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완치 여부에 상관없이 PCR 검사 음성 결과서 제출 필수.</li> <li>또한 입국 후 4일~7일 사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 시 격리(자비 부담)</li> </ul> </li> </ul>
오스트리아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 대상 3G(백신, 회복, 검사) 증명의무 폐지 ( '22.5.16~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입국지역이 바이러스 변종지역으로 재분류될 경우 3G규칙 준수 의무</li> <li>- 마스크 착용의무는 의료시설, 폐쇄공간,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및 소매점에만 적용</li> <li>- 병원 또는 요양원 방문 시에는 3G 인증 필요. 백신접종증명서 유효기간 365일로 조정</li> </ul> </li> </ul>
프랑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나 일부 제한조치 유지</li> <li>○ 6.26부터 오를리공항(국내 및 유럽노선 거점) 운영 재개</li> <li>○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르세유) ~8.31까지 4개 박물관 무료입장</li> <li>- (노르망디) 국내관광 신규 캠페인(#올 여름은 노르망디에서) 추진</li> </ul> </li>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 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1.6~)</li> <li>○ 부분적인 국내여행 1차 재개(4.12) 후 5.17일 모든 국내여행 재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내) 출발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결과확인서 제출 의무</li> <li>○ (EU 역외) 1.31일부터 비유럽연합(EU) 국경 잠정 폐쇄(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한 직업상의 사유 또는 건강상의 사유 등 예외적 입국 시, 입국목적 확인서,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확인서(영문, 11세이상),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 및 7일 경과 후 PCR재검사 실시 동의 및 서약서 필수지참</li> </ul> </li> <li>○ 한국 등 7개 국가* 대상 예외적 여행제한 완화(3.11~). 72시간 이내 음성결과 증명서 지참 시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7개 국</li> </ul> </li> <li>○ 정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 및 15개국 여행객 대상 입국 제한( '21.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의무국가 : 영국, 북아일랜드, 바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터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브라질, 칠레</li> <li>- 정부는 입국객 대상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준수여부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음. 단, 자가격리 의무국가로 지정될 경우 격리장소를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음(위반 시 1천유로 부과)</li> </ul> </li> <li>○ 5.31일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발 비필수 여행객 입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EU 회원국민, 프랑스 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하며 입국 전 PCR 테스트와 7일 자가격리 필요</li> </ul> </li> <li>○ 12세 이상 비유럽지역 발 입국객 대상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영문) 및 무증상·무접촉 진술서 제출 의무</li> <li>○ 영국발 여행객( '21.12.16~) 및 관광객 입국제한( '21.12.18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프랑스·EU 국적인 및 가족, 장기비자 소지자, 운수업자, 24시간 이내 환승객 등은 제외</li> </ul> </li> <li>○ 해외 영토령 발, 프랑스 입국 시 24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21.12.28~)</li> <li>○ 백신접종완료한 영국인에 한해 입국조건 완화( '22.1.14~)</li> <li>○ 해외 영토령 발 프랑스 입국 시 무증상/무접촉 진술서 제출 의무( '22.2.12~)</li> </ul>
영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 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 '21.1.6~)</li> <li>○ 부분적인 국내여행 1차 재개( '21.4.12) 후 5.17일 모든 국내여행 재개</li> </ul>



	인바운드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든 입국제한 철폐( '22.3.18~)
	아웃바운드	○ '21.11.8일부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해외 여행객 입국 재개 발표에 따라 영국 항공업계도 수요 증가 대비 항공편 증편 실시 ○ JET2 항공, 10월 마지막 주 하프텀 방학 기간 연계, 스페인령 카나리제도 및 터키 등 주요 휴가 목적지 대상 증편 ○ 영국 공공보건서비스(NHS) 발급 백신여권, EU 내 공식 인정( '21.10.28~) ○ 영국발 비필수 여행객 독일 입국금지령 해제( '22.1.4~) ○ 이스라엘 정부, 영국 포함 적색국가 리스트 해제 및 입국 재허용( '22.1.9~) - 백신접종자 및 확진 후 회복자, 입국 후 24시간 또는 음성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후 입국 가능 ○ 영국항공, 여름 시즌 런던시티공항발 신규 4개 노선 런칭 - 룩셈부르크, 밀라노(이상 3.27), 바르셀로나, 데살로니키(이상 '22.6월) ○ 스페인, 하프텀 방학 주간(2월 3주차) 앞두고 영국 포함 非 EU국가 대상 입국 규제 완화로 영국 가족관광객 유치 가능성 증가 - 기존 12~17세 청소년 백신 2회 접종 규정→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로 대체 ○ 콰타르 항공, 시드니-런던 직항 노선 2025년 말까지 도입계획 발표 - 도입 시 운항시간은 2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최장 정기노선이 될 예정
러시아	국내	○ '20.6.1일부터 의료면허 소지 치료 목적 휴양소 영업 재개 ○ '20.7.1일 러시아 지역 간 국내관광 재개 ○ '20.12.15일까지 국내관광 활성화 캐시백 캠페인 시행 ○ 하비롭스크,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집단 면역 수준(72.4%) 달성에 따라 QR 코드 시스템 운영 중단 등 점차적 방역 규제 완화 ○ 부랴티야 공화국, 공공 장소 방문 시 QR 코드 인증제 폐지( '22.2.21~) ○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주, 모스크바 주, 블라디미르 주, 톰스크 주, 크라스노다르 주 QR 코드 제도 폐지( '22.3.4~) ○ 모스크바, 마스크 착용 규제 해지( '22.3.15) ○ 육로 입국 자국민 및 EU 국가 국민에 한하여 PCR 검사 의무 폐지( '22.4.1) ○ 키로프 주( '22.4.18) 및 니즈니 노브고로드시 마스크 의무 해제 ( '22.4.19) ○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 20명 이상 단체관광 박물관 입장 허용 ( '22.4.25)
	인바운드	○ '20.8.1일부터 국제선 일부 운항 재개 ○ '21.12.1일부 5개국(방글라데시, 브라질, 몽골,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과 국제선 운항 재개 ○ '22.4.9 일부 52개 우호국가 간 정기 국제선 및 전세기 운항 재개
	아웃바운드	○ 독일·스페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목적으로 러시아발 입국 금지 ○ 조건 충족 러시아 관광객, 터키 입국 허용 - Sputnik V, Sputnik Light, EpiVacCorona, 및 KoviVac을 접종한 러시아 관광객의 터키 입국 허용. 영어로 작성된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 - 입국 전 코로나19에 걸린 관광객은 항체 존재 증명서 소지 시 입국 허용 -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항체도 없을 경우, 터키 입국 72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 포함 인증서 소지 시 입국 가능 ○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러시아인, 격리 및 PCR 검사 없이 헝가리 입국 허용( '21.7.27~) ○ 호주,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한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 '22.1.17~) ○ 필리핀,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한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 '22.2.10~) ○ 인도의 입국 규제 완화로 인도 무격리 입국 가능( '22.2.14~) ○ 라트비아,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서 소지한 러시아인에게 국경 개방( '22.3.1~) ○ 이스라엘, PCR테스트 결과만으로 입국 가능( '22.3.1~) ○ 이탈리아, 입국 규제 완화로 WHO백신접종 증명서, PCR테스트, 완치증명서 중 하나로 러시아인 입국 가능( '22.3.1~) ○ 말레이시아, 태국 입국 규제 완화 - 러시아 백신 인정 ( '22. 4.1~) ○ 프랑스, 러시아인 여행목적 및 모든 비자업무 재개 및 백신접종 요구 폐지( '22.4.1~) ○ 덴마크, 스웨덴 - 러시아인 여행목적 및 모든 비자업무 재개 및 백신접종 요구 폐지 ( '22.4.11~) ○ 카자흐스탄 - 러시아발 육로 입국자에 한하여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폐지 ( '22.4.11 ~) ○ 태국 입국 러시아인 백신 접종자 에 한하여 PCR 검사 폐지 ( '22.5.1~) ○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 입국시 코로나 백신 및 PCR 검사 의무 폐지( '22.5.1~) ○ 세르비아 - 입국 시 코로나 백신 및 PCR 검사 의무 폐지( '22.5.3~) ○ 오스트리아 - 외국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관련 모든 의무제도 폐지( '22.5.16~) ○ 인도네시아 - 입국 시 PCR검사 결과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22.5.17~) ○ 벨기에 - 외국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관련 모든 의무제도 폐지( '22.5.23~) ○ 키프로스 - 입국 시 코로나 19 백신 및 PCR 검사 의무 폐지( '22.6.1~) ○ 일본 - 러시아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백신 및 PCR 검사 의무 폐지 ( '22.6.10~)

## 참고2

##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6.7 기준]

### <한-중국>

#### □ 항공 동향 \* 민항국(民航局) 통지 의거, 2020.3.29부터 항공사별 1개 노선 외, 전 노선 운항중단

- \* 중국 민항국(民航局)의 《5·1정책(항공사별 1개 국가, 1개 노선, 1주 1편 운항)》(3.29~) 지속 하, 《제5차 국제항공편 조정(외국항공사의 중국 노선 조건부 운항 재개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6.8~) 정책 발표에 의거, 한-중 양국 국제선 확대 합의에 따라 항공노선 운항
- \* 중국 민항국, 베이징 입국 국제 직항노선 전면불허 (적용기간 : 2022.3.27.~2022.10.29.)

구분	항공사	운항노선	조치	내용
국제항공사	대한항공(KE)	인천-선양	운휴	매주 금요일('22.5.20~6.10 운휴)
		인천-광저우	운항	정상운항
		인천-톈진	운휴	매주 화요일('22.6월 말 이후 재운항 추진)
		인천-다롄	운휴	매주 금요일('22.3.11~운휴, 7월 이후 재운항 추진)
	아시아나항공(OZ)	인천-창춘	운휴	매주 화요일('22.3.15~운휴, 7월 이후 재운항 추진)
		인천-난징	일부 운항	매주 일요일(인천발 운휴, 난징발 정상 운항) ※ '22.5.29~6.26 출발·도착시간 12:10~15:30로 변경
		인천-청두	운휴	매주 목요일('22.3.17~운휴, 7월 이후 재운항)
		인천-하얼빈	정상	매주 목요일
	제주항공(7C)	인천-웨이하이	운항	매주 수요일(정상운항)
		인천-하얼빈	운휴	매주 수요일('22.3.30~5.31 운휴, '22.6월 재운항 예정)
	진에어(LJ)	제주-시안	운휴	매주 목·토요일(운휴 중)
	에어부산(BX)	인천-닝보	운휴	매주 일요일(운휴 중)
		부산-칭다오	운항	매주 목요일(정상운항)
	티웨이항공(TW)	대구-엔지	일부 운항	매주 목요일(대구발, '21.8~ 운휴, 엔지발 '22.4.14~ 재운항 예정)
		인천-우한	일부 운항	매주 수요일(정상운항)
		인천-지난	운휴	매주 금요일('22.3.14~ 운휴)
	에어서울(RS)	인천-엔타이	운휴	매주 목요일(정상운항, '22.5.5~)
		인천-칭다오	운휴	매주 화요일('22.3.29~ 운휴, 운항재개 시기 미정)
중국항공사	중국국제항공(CA)	인천-베이징	변경 운항	매주 목요일('22.5.26~10.29 인천-다롄행으로 변경 운항, 22.5.26~10.29 베이징-인천 운항)
		인천-항저우	운휴	매주 화요일('22.3.14~운휴, 4.26부터 재운항 예정)
	중국남방항공(CZ)	인천-선양	운휴	매주 일요일(운휴 중)
		인천-광저우	운항	매주 목요일(정상운항)
	중국동방항공(MU)	인천-상하이 푸둥	변경 운항	매주 금요일('22.6.1~6.30 인천발 인천-지난 변경 운항)
		인천-엔타이	운휴	매월 마지막 목요일 1회('22.4.28~ 정상운항)
	샤먼항공(MF)	인천-샤먼	운항	매주 월·토(4.12, 5.19 추가 운항 예정, 월 1회)
	산둥항공(SC)	인천-칭다오	운항	매주 금요일('22.4.15~ 운항재개)
	선전항공(ZH)	인천-선전	운항	매주 수요일('22.4.13~ 운항재개)
	칭다오항공(QW)	인천-칭다오	운항	매주 토요일('22.4.30~)
	춘추항공(9C)	인천-상하이 푸둥	변경 운항	매주 월요일('22.6.1~6.30 인천발 인천-항저우 변경 운항)
		인천-닝보	운휴	매주 월요일('22.3.21~ 운항 취소)

## □ 페리 동향

지 역	노선	내용
텐진	(진천선무) 인천-텐진	여객운송 중지( '20.1.20~)
동북3성	(동방명주) 인천-단둥	여객운송 중지( '20.1.28~, 화물수송은 지속)
	(범영훼리) 인천-잉커우	여객운송 중지( '20.2.3~)(화물운송 지속)
	(대인훼리) 인천-다롄항	여객운송 중지( '20.2.20~)(화물운송 지속)
산동성	모든 노선	여객운송 중지 (화물 정상 운송)
장쑤성	(연운항훼리) 인천-렌원강	여객운송 중지( '20.2.1~) (화물수송은 지속)

## <한-홍콩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홍콩 주 3회(수, 금, 일) 운항( '20.6.16~) * '22.7월부터 주 4회로 증편 및 항공기종 확대 예정(B777→A380)
아시아나	운항	인천-홍콩 주 2회(수, 금) 운항( '21.12.26~) * '22.7월부터 주 3회로 증편 예정
캐세이퍼시픽	운항	인천-홍콩 '22.5월 월 1회(5.22), 6월 주 1회(6.8, 13, 23, 28), 7월 주 2회(일, 금) 운항
홍콩에어라인	운항	인천-홍콩 주 1회 운항 예정( '22.6.5~)
티웨이	운항중단	인천-홍콩, 대구-홍콩, 제주-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이스타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제주-홍콩( '20.3.3~)
에어부산	운항중단	김해-홍콩( '20.2.16~)
제주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18~), 제주-홍콩( '20.2.12~)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 '21.12.23~)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캐세이드래곤	운항중단	제주-홍콩( '20.2.6~), 부산( '20.2.6~) * 캐세이드래곤 ' 20.10.21 폐업
홍콩익스프레스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3~), 김해-홍콩( '20.3.3~)

## <한-대만>

## □ 항공 동향

항공사	노선	조치	내용
대한항공	타오위안-부산	운휴	'20.2.25~ 운항중단
	타오위안-인천	정상운항	주 3회 운항(화, 금, 일)
아시아나	까오슝-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이중-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오위안-인천	정상운항	주 4회 운항(수, 목, 토, 일)
진에어	타오위안-인천	운휴	화물기만 주 2회 운항 중
제주항공	까오슝-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까오슝-제주	운휴	'20.2.25~ 운항중단
	타오위안-대구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오위안-무안	운휴	'20.2.24~ 운항중단
	타오위안-부산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오위안-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오위안-제주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오위안-청주	운휴	'20.2.17~ 운항중단
	까오슝-부산	운휴	'20.6.1~ 운항중단
에어부산	까오슝-부산	운휴	'20.2.25~ 운항중단
	까오슝-인천	운휴	운항취소
	타오위안-대구	운휴	운항취소
	타오위안-부산	운휴	'20.2.17~ 운항중단
이스타	까오슝-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송산-김포	운휴	'20.2.27~ 운항중단
	타오위안-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오위안-제주	운휴	'20.2.17~ 운항중단
	타오위안-청주	운휴	'20.2.19~ 운항중단

	화렌-인천	운휴	'20.2.18~ 운항중단
	타오위안-부산	운휴	'20.2.16~ 운항중단
	화렌-부산	운휴	'20.2.18~ 운항중단
티웨이	까오슝-부산	운휴	'20.2.21~ 운항중단
	까오슝-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송산-김포	운휴	'20.2.27~ 운항중단
	타오위안-대구	운휴	'20.2.11~ 운항중단
	타이중-인천	운휴	'20.2.25~ 운항중단
	타이중-부산	운휴	'20.2.18~ 운항중단
플라이강원	타오위안-양양	운휴	'20.2.25~ 운항중단
중화항공	타오위안-인천	운휴	'21.8.1~ 운항중단
	타오위안-부산	운휴	'20.2.28~ 운항중단
	까오슝-인천	운휴	'20.2.28~ 운항중단
	송산-김포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오위안-인천	정상운항	주 4회 운항 (월,수,목,토)
에바항공	송산-김포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이중-인천	운휴	'20.2.27~ 운항중단
	까오슝-인천	운휴	'20.2.27~ 운항중단
	타오위안-인천	정상운항	주 2회 운항(금,일)
유니항공	타오위안-인천	운휴	'20.2.26~ 운항중단
타이거항공	타오위안-대구·제주·인천	운휴	'20.2.25~ 운항중단
	타오위안-부산	운휴	'20.2.27~ 운항중단
캐세이퍼시픽	타오위안-인천	운휴	'20.2.10~ 운항중단
타이항공	타오위안-인천	운휴	'20.3.5~ 운항중단
스쿠트항공	타오위안-인천	운휴	'21.12.1~ 운항중단

## □ 크루즈 동향

지 역	노선	내 용
지룽	(프린세스)지룽-일본-한국-지룽	'22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룽	(코스타)지룽-한국-일본-지룽	'22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몽골 항공 동향>

- \* 성수기 시즌(6~9월)에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 추가 배분 결정('22.4.14)  
- 대한항공 주7회, 아시아나 주4회, 제주항공 주4회, 티웨이항공 주3회

항공사	조치	내 용
몽골항공	정기편	인천-울란바토르 주 4회('22.5월~)
대한항공	정기편	인천-울란바토르 주 2회('22.5월~)
에어부산	운항중단	김해-울란바토르('20.2.25~'22.4월 운항중단)
아시아나	정기편	인천-울란바토르 주 1회('22.4월~)

## <한-일본>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 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운항중단(~ '22.6.14, 6.15 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2.5.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2.5.1~5.31, 주 10편(매일 1편, 목,토,일은 2편) 운항 예정 '22.6.2~6/30, 주 10편(매일 1편, 목,금,일은 2편) 운항)
		간사이-인천('22.5.1~7.31 주 3편(수,목,토) 운항) 나고야-인천('22.5.1~7.31 주 3편(수,토,일) 운항) 후쿠오카-인천('22.5.19~) 주 1편 운항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2.4.30)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2.5.12~6.30, 매일 1편 운항) 나고야-인천( '22.6.1~6.30, 주 2편(수,금) 운항) 후쿠오카-인천( '22.3.25~5.10, 주 2편(금,일), '22.5.11~ 주 3편(수,금,일) 운항)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2.5.30)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2.5.31)
티웨이항공	운항재개	나리타-인천( '22.5.6~5.31 주 1편(금), '22.6.1~6.30 주 2편(수,금) 운항) 간사이-인천( '22.6.1~6.30 주 2편(목,일) 운항) 후쿠오카-인천( '22.5.7~ 매주 1편 운항)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5.31)
에어부산	감편운항	간사이-인천( '22.5.27~6.26 주 1편(금), '22.6.27~10.28 주 2편(월,금) 운항) 간사이-부산( '22.7.1~10.29 주 2편(금,일) 운항) 후쿠오카-부산( '22.5.31~ 주 1편(화) 운항) 나리타-인천( '22.5.25~10.29, 주 1편(수) 운항)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2.5.31)
진에어	감편운항	간사이-인천( '22.6.1~6.30, 주 2편(화,일) 운항) 후쿠오카-인천( '22.3.26~ 주 2편(수,토) 운항, 4.9 운휴) 나하-인천( '22.3.27~ 주 6편(월화수목토일)) 나리타-인천(~ '22.5.31, 주 2편 운항, '22.6.1~6.18, 주 2편(목,금)운항, 22.6.19~6.30, 주 4편(화목금일)운항)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5.31)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20.10.16~ '22.5.31 주 3편(일,화,금) 운항) ( '22.6.1~22.6.30 주 6편(화,수,목,금,토,일) 운항)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5.31)
제주항공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2.5.6 운항중단, 5.7~6.30,, 주 2편(목,토) 운항) 간사이-인천( '22.3.1~6.30, 주 3편(수,금,일) 운항, 6.8 운휴)

## □ 페리 동향

지 역	노선	내 용
일본	(비틀)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카메리아)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칸푸페리) 시모노세키-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팬스타) 오사카-부산	당분간 운휴

## □ 크루즈 동향

지 역	노선	내 용
지롱	(프린세스)지롱-일본-한국-지롱	'22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롱	(코스타)지롱-한국-일본-지롱	'22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태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 용
대한항공	운항재개	방콕-인천(주 7회) 운항
아시아나항공	운항재개	방콕-인천(주 7회) 운항 푸켓-인천 주 7회 운항 예정( '22.7월~)
타이항공	운항재개	방콕-인천(주 7회) 운항
제주항공	운항재개	방콕-인천 주 4회 운항 예정( '22.6월~) 치앙마이-인천 주 3회 운항 예정( '22.7월~, 전세기) 방콕-제주 주 2회 운항 방콕-부산 주 2회 운항
진에어	운항재개	방콕-인천 주 6회 운항
티웨이	운항재개	방콕-대구 주 2회 운항 방콕-인천 주 2회 운항
에어아시아	운항재개	방콕-인천 주 3회 운항



## <한-싱가포르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증편	싱가포르→인천 주 7회(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시아나	증편	싱가포르↔인천 주 7회(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주항공	운항재개	싱가포르↔부산 주 2회(수, 토) 운항 예정( '22.6.24~)
싱가포르항공	증편	싱가포르↔인천 주 11회(월, 화, 수, 목, 금, 토, 일)
스쿠트항공	증편	싱가포르↔인천 주 4회(화, 목, 토, 일) ( '22.6.1~)
		싱가포르↔제주 주 3회(수, 금, 일) ( '22.6.15~)
티웨이항공	신규취항	싱가포르 ↔인천 주 2회(목, 일) ( '22.5.29~)

## <한-필리핀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주 11회 운항(월, 수, 토 각 1회, 화, 목, 금, 일 각 2회) 세부→인천 주 2회 운항(목, 일)
아시아나	감편	마닐라→인천 주 12회 운항(월, 수(1회), 화, 목, 금, 토, 일(2회)) '22.6.1~
제주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주 7회( '22.7.1~), 세부-인천 주 7회( '22.7.20~), 클락-인천 주 4회(수, 목, 토, 일, '22.6.22~) 운항
필리핀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주 5회(화, 수, 목, 토, 일) 운항, '22.6.1~
세부퍼시픽	감편	마닐라→인천 주 7회(매일, '22.6.1~), 세부→인천 주 2회(목, 일, '22.7.1~)
진에어	감편	클락→인천 주 7회(매일) 운항, 세부→인천 주 2회(목, 일, '22.7.1~) 운항
에어부산	감편	세부→부산 주 2회(월, 금) '22.7.15~
티웨이항공	감편	세부→인천 주 2회(목, 일, '22.7.1~), 세부→대구 주 5회(월, 목, 금, 토, 일, '22.7.1~) 칼리보→인천 주 2회(수, 토, '22.6.22~) 운항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플라이강원	감편	클락→양양 주 2회(화, 금) '22.6.25~
팬퍼시픽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서울	운항중단	칼리보→인천 주 4회(금, 토, 월, 화) '22.6.17~ 운항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델타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 <한-말레이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KL 주 3회 운항 ( '22.7.1~ 주 5회 증편 확정, 11월 이후 주 7편 운항 예정)
에어아시아	운항재개	인천-KL 주 1회 운항 재개 ( '22.4.21~)
말레이시아항공	운항재개	인천-KL 주 2회 운항(~ '22.10월)

## <한-인도네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가루다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2회 운항(화, 목)
인도네시아	운항중단	발리-인천 운항중단
대한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화, 금, 일) 발리-인천 운항 중단(~2021.11)
아시아나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수, 금, 일)

## <한-베트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하노이-인천 : 주 3회 운항(화, 금, 토) 호치민-인천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하노이 : 주 3회 운항(화, 금, 토)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아시아나	운항	하노이-인천 : 주 6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호치민-인천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하노이 : 주 6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에어부산	운항중단	'22.6월 말 전세기 운항 예정 (인천-나트랑, 부산-다낭)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한국-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진에어	운항중단	한국-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제주항공	운항중단	한국-베트남 운항중단(~미정)
비엠텟	운항	하노이-인천 : 주 4회 운항(화, 목, 금, 일) 호치민-인천 : 주 4회 운항(월, 수, 금, 일) 다낭-인천 : 주 4회 운항(화, 목, 토, 일) 푸꾸옥-인천 : 주 5회 운항(월, 수, 목, 토, 일) '22.5.21일부터 운항
베트남항공	운항	하노이-인천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호치민-인천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하노이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노이-부산 : 주 3회(월, 화, 금) * '22.6월 초 운항 예정 호치민-부산 : 주 4회(수, 목, 토, 일) * '22.6월 초 운항 예정 다낭-인천 : 주 4회(월, 수, 금, 일) * '22.6월 초 운항 예정
뱌부 에어웨이즈	운항	인천-하노이 : 주 3회 운항(월, 목, 금) 인천-호치민 : 주 3회 운항(수, 목, 일) 인천-다낭 : 주 3회 운항(수, 목, 일)

\*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일시 중단되었던 한국발 다낭행 상업용 정기편 운항 재개( '22.4.29~)

## <한-인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 인디아	운항중단	델리-인천노선 주 4편(화, 토) (~미정)
대한항공	운항중단	뭄바이-인천노선(주 3회) → 뭄바이 지점 폐쇄 델리-인천노선 (~미정)

## <한-네팔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카트만두 운항중단(~2021.11)

## <한-UAE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두바이('20.3.5~)
에미레이트항공	부분재개	인천-두바이 주 7회('21.7월~)
에티하드항공	운항재개	인천-아부다비 주 6회 *목요일 제외

\* '20.6.23일부터 목적 제한 없이 한국으로 여행(이동) 가능

## <한-카자흐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아스타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3회(월, 목, 일) 운항
아시아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1회(목) 운항

## <한-우즈베키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우즈베키스탄 에어웨이	감편운항	타쉬켄트-인천 주 3회(목, 일) 운항
아시아나	감편운항	타쉬켄트-인천 주 1회(수) 운항
대한항공	감편운항	타쉬켄트-인천 주 1회(수) 운항

## <한-폴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LOT	운항재개	바르샤바-인천( '20.7.3~) 주 4회(월,수,금,일)

## <한-스페인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마드리드(~22.6.30) 인천-바르셀로나(~22.6.30) * '22.9.1~ 주 3회 예정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바르셀로나(~22.6.30)

## <한-터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터키항공	운항	이스탄불-인천 주 7회 운항
아시아나	운항예정	이스탄불-인천 주 2회 운항재개 예정( '22.7.23~)
대한항공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 주 1회(금) 전세기 운항( '22.4.29~, 정기편 미운항)

## <한-영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런던-인천(주 3회(월,목,금)) → 주 4회(월,목,금,토) 22.6.18~)
아시아나	감편	런던-인천(주2회(수,토) → 주 3회(월,수,토), '22.6.1~)
영국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 '20.4.11~재개시기 미정)

## <한-이탈리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22.6.30) * '22.9.1~ 주 3회 예정 인천-밀라노(~22.6.30) * '22.7.1~ 주 3회 예정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22.6.17) * 22.6.18~ 주 2회 예정 인천-베니스(~22.6.30)

##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러시아 사태로 인한 영공 미 통과로 '22.2.27~3.11 일시중단 후 3.12일 우회노선으로 재개 예정(주 3회))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재추진(런칭시기 3월 말에서 7월 말로 연기, 주3회(월,수,금))

## <한-프랑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4회, ~22.6.11, '22.6.12~ 주 5회 운항 예정)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파리(~22.6.21) * '22.6.22~ 주 3회 운항 예정
에어프랑스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22.6.30, 항공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한-독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루프트한자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22.3.27~ 주 7회 운항) 뮌헨-인천 ( '22.3.27~ 주 6회(월,화,목,금,토,일) 운항)
아시아나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 '22.5.2 주 4회 (월,수,금,일) 운항, '22.5.28~10.29 주 5회 (월,수,금,토,일) 운항)
대한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 '21.12월부터 주 2회 (목, 토) 운항)

## <한-뉴질랜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뉴질랜드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2년 5~7월 주 1회 금요일 운항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2년 5~6월 주 1회 월요일 운항

## <한-호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젯스타	신규운항	시드니->인천( '22.11.2~12.31, 주 3회(수,금,일 운항))
대한항공	정기운항	브리즈번->인천 운항 중단 시드니-인천( '22.6월 주 3회(수,금,일), 7월 주4회(월,수,금,일) 운항)
아시아나항공	정기운항	시드니-인천( '22.6월 주 3회(수,금,일), 7월 주4회(월,수,금,일) 운항)
판타스	신규 운항	시드니-인천( '22.12.10~, 주 4회(화,목,토,일 운항)

## <한-미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정상운항(1)	인천-애틀랜타(주7회, '21.11.1~)
	감편(7)	인천-뉴욕(주7회, 2021.11월~) 인천-워싱턴(주4회, 2021.11월~) 인천-시카고(주4회, 2022.6.1~) 인천-시애틀(주3회, 2021.11월~) 인천-보스턴(주3회, 2021.11월~) 인천-댈러스(주3회, 2021.11월~)
	증편(4)	인천-LA(주 12회 → 주 14회, 2022.5.16~) 인천-호놀룰루(주 3회 → 주 5회, 2022.5.1~) 인천-시카고(주 3회 → 주 4회, 2022.6월~) 인천-샌프란시스코(주 5회 → 주 7회, 2022.6월~)
아시아나	감편(2)	인천-뉴욕(주7회, ~2022.6.30) 인천-시애틀(주3회, ~2022.6.30)
	증편운항(2)	인천-LA(주11회 → 주14회, 22.5.30~) 인천-샌프란시스코(주 4회 → 주 5회, 2022.6.1~6.16., 주 5회 → 주 4회, 2022.6.17~6.30)
	운항중단(1)	인천-호놀룰루(주3회, '22.6.30~)
델타	감편(3)	인천-시애틀(주4회→주3회, '21.10.1~) 인천-애틀랜타(주4회→주3회, '22.4.11~) 인천-디트로이트(주4회 '22.02.14~)
	운항중단(1)	인천-미네아폴리스( '20.2.29 ~ )
유나이티드	정상운항(1)	인천-샌프란시스코(주7회)
아메리칸	정상운항(1)	인천-댈러스(주7회, '20.6.4~ )
하와이안	증편운항(1)	인천-호놀룰루(주3회→주4회, '22.6월~ 주 4회 운항 예정)
에어서울	운항재개(1)	인천-괌(주 2회, '22.5.14~)
	신규운항(1)	인천-사이판(22.3.30~, 주2회)
티웨이항공	운항재개(1)	인천-괌(주2회)
	증편(1)	인천-사이판( '22.5.30~, 주 4회)
에어부산	증편운항(2)	부산-사이판(22.03.16~, 기존 주 1회→주2회)
		부산-괌( '22.04.30~, 기존 주 1회→주2회)

\* 대한항공 : 미국노선 전면 발열 체크 의무화 및 추가 기내 방역 강화

## <한-사이판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아시아나항공	운항재개	인천-사이판(주 1회, '21.7.24~)
티웨이항공	운항재개	인천-사이판(주 1회, '21.7.29~)



## <한-캐나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캐나다	감편	인천-밴쿠버: 주 4회 *화수금일 (밴쿠버-인천 : 주 4회 *월화목토)
	감편	인천-토론토: 주 4회 *월화목토 (토론토-인천 : 주 4회 *월수금일)
대한항공	감편	인천-밴쿠버 : 주 5회 *화목금토일 (밴쿠버-인천 : 주 5회 *화목금토일)
		인천-토론토 : 주 4회 *월수금토 (토론토-인천 : 주 4회 *월수금토)

## <한-네덜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암스테르담 (주 7회→주 2회, ~22.6.13) '22.6.14~ 주 3회 예정
KLM	감편	인천-암스테르담 (주 7회→주 4회, ~22.6.30, 항공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한-러시아>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모스크바-인천( '20.3.5~)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9~) * 12.4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2.3.22~) 모스크바-인천( '22.3.11~)
오로라항공	운항중단	모스크바-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하바롭스크-인천( '20.9.17~) : 주 7회 운항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S7항공	운항중단	노보시비르스크-인천( '20.9.2~) : 주 2회 운항(수, 토)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이르쿠츠크-인천( '20.3.1~)
야쿠티야항공	운항중단	야쿠츠크-인천( '20.3.1~)
제주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에어부산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부산( '20.2.26~)
아에로플로트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1~) * 12.3일부터 매주 목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운항중단	모스크바-인천( '22.3.10~) 블라디보스톡-인천( '22.3.10~)

\* (모스크바) 아에로플로트 3.10부터 운항중단, 대한항공 3.11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대 지급, 안전상의 사유로 잠정 운항중단

\* (블라디보스톡) 오로라항공(아에로플로트), S7 3.10부터 운항중단, 대한항공·에어부산 3.22부터 항공 보험문제로 잠정 중단

### □ 페리 동향

지 역	선	내용
블라디보스톡	동해-블라디보스톡	동계 정기휴항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 (당초 휴항 예정 기간 : 2019년12월 ~ 2020년 3월초)

### 참고3

###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 [해외지사 동향보고, 6.7]

#### □ 총 29개국

No	구분	국가	관리 조치
1	중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일부국가·미국·이란·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15개국 대상 자국민 여행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3.17)</li> <li>▶ 중국인 해외여행 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4.21)</li> <li>▶ 엄격한 출입국 정책을 통한 국민의 불필요한 출국 활동 제한(중국국가이민관리국, '22.5.12)</li> <li>▶ 여행사 및 OTA 대상 출입국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업무 취급 금지(중국문화여유부, '22.5.16)</li> </ul>
2	비중국 중화권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격상(홍콩 보안국, '20.2.25)</li> <li>▶ 해외 모든 지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홍콩 보안국, '20.3.17)</li> <li>▶ 해외지역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국가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국가(Group A) :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22개국</li> <li>- 중위험국가(Group B) : 고·저위험국가, 중국·마카오·대만 외 전체, 한국 포함</li> <li>- 저위험국가(Group C) : 뉴질랜드</li> </ul> </li> <li>▶ 위험도에 따른 국가 분류 미시행(홍콩정부, '22.3.21)</li> <li>(기존지침) 해외지역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국가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국가(Group A) :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22개국</li> <li>- 중위험국가(Group B) : 고·저위험국가, 중국·마카오·대만 외 전체, 한국 포함</li> <li>- 저위험국가(Group C) : 뉴질랜드</li> </ul> </li> <li>▶ 5.1일부터 해외여행 경보 해제(홍콩정부, '22.4.29)</li> <li>- 전세계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모든 해외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해외여행 경보 해제</li> <li>- 다만, 보건당국은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고</li> </ul>
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4단계(방문부적합, 최대한 빠른 철수) 발령(대만 외교부, '20.3.19)</li> <li>▶ 해외 모든 지역 여행 적색경보 발령(대만 외교부, '20.3.21)</li> </ul>
4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마카오 위생국, '20.2.23)</li> <li>* 고위험지역 방문객 대상 별도 지정장소에서 검역 강화</li> <li>▶ 한국 2단계 여행경보(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20.2.25)</li> <li>▶ 해외 모든 지역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20.3.19)</li> </ul>
5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류자격 보유자에 한해 일본 재입국 허용('20.9.1)</li> <li>* (PCR) 출국전 검사증, (대사관 발급) 재입국확인서 지참 조건</li> <li>▶ 종장기 체류 대상 외국인, 일본 신규 입국 허용('20.10.1~)</li> <li>* 출국 전 PCR 검사 음성,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 조치 확약이 가능한 기업, 단체 대상, 입국자 수 한정 조건</li> <li>▶ 양국 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20.10.8)</li> <li>* 단기출장자용 '비즈니스 트랙' 과 장기체류자용 '레지던스 트랙' 으로 운영,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증 제시 등 조건충족시 14일 격리조치 면제</li> <li>▶ 대한민국 전역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3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방문) 격하('20.10.30)</li> <li>▶ 영국발 변종 유행 우려로 전세계 대상 신규 외국인 입국 재금지</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개('21.1.14~2.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연장('21.2.8~3.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연장('21.3.8~3.21)</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연장('21.3월~)</li> <li>▶ 비즈니스트랙 일부 입국제한 완화('21.11.8~)</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시행('21.11.30~)</li> <li>▶ 유학비자, 비즈니스트랙 등 일부 입국제한 완화('22.3.1~)</li> </ul>
6	아시아 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국가 공무 여행 금지 발표(태국 내무부, '20.3.1)</li> </ul>
7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여행 자제(싱가포르 보건부, '20.3.18)</li> <li>▶ 한국·독일·말레이시아 대상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Fast lane 제도 3개월 중단 발표('21.1.30)</li> <li>* 신속통로제도와는 별도로 한국 입국 시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li> </ul>
8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8~3.31 이동 제한 명령으로 해외여행 금지(말레이시아 총리실, '20.3.16)</li> <li>▶ 20.8.31까지 이동 제한 명령 5차 연장(말레이시아 총리실, '20.6.7)</li> <li>▶ 국경봉쇄 지속 실시(싱가포르 국경에서 400명/주 한도 내에서 사전허가에 의한 출퇴근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5일부터 KL, 셀랑고르 등 수도권 조건부이동금지령으로 단계 하향, 회복 이동금지령 지역 간 관광객 방문은 허용하되 반드시 여행사 상품을 통해서 함</li> <li>▶ (21.3.30) KL, 셀랑고르 등 수도권 조건부이동금지령 5.20일까지 연장 발표</li> <li>▶ (21.5.10) 전면이동금지령 전국 확대 ( ' 21.5.12~ ' 21.6.7)</li> <li>▶ ( ' 21.5.22) 전면이동금지령 방역지침 강화 ( ' 21.5.25~ ' 21.6.7)</li> <li>▶ (21.5.28) 6.1~6.14 3차 완전 봉쇄조치 시행</li> <li>▶ (21.6.12) 3차 완전봉쇄조치(Full Lockdown) 기간 연장 발표 ( ' 21.6.1~6.28)</li> <li>▶ (21.7.2) KL · 셀랑고르 외 8개 지역 강화이동금지명령시행(KL, 7.3~7.16)</li> <li>▶ (21.7.16) KL · 셀랑고르 외 8개 지역 강화이동금지명령 종료, 풀다운으로 단계 하향 적용</li> <li>▶ (21.8.26) KL · 셀랑고르 등, 전면이동금지명령(FMO) 지역에서 백신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10KM 이동 금지 해제, 차량 탑승인원 완화, 식당/카페 출입허용 등), 영업 가능 업종 추가(가전·의류 등 비접촉 상품 판매 업종 운영 허용)</li> <li>▶ (21.9.10) KL · 셀랑고르 등, 이동금지명령 단계 완화(국가재건특별법 2단계 적용), 극장, 공연장 등 운영재개(업종별 입장인원 제한 30~50%), 관광업종 사무실 출근 허용(백신접종 완료자 중 최대 80%)</li> <li>▶ (21.9.23) 총리 10.1일 이후 전 직원 백신접종 완료 기업 정상운영 허용 발표</li> <li>▶ (21.10.11) 총리 10.11일 이후 백신 접종자 국내/해외여행 허용 발표</li> <li>▶ (21.12.07) 오미크론 발생 아프리카 8개국 랑카위 트래블버블 일시 중지</li> <li>▶ (22.3.9) 4.1일부터 엔데믹 돌입 및 국경전면개방 발표</li> <li>▶ (22.4.1) 총리, 4.1일 예정되었던 엔데믹 체제 전환 유보</li> <li>▶ (22.5.1~) 출입국자 PCR 검사 및 입국자 코로나9 보험가입 의무 폐지</li> </ul>
9		베트남	▶ 여행자제 국가로 한국 지정(베트남 총리, '20.2.21)
10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여행 연기·자제 및 방문금지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2.24)</li> <li>▶ 전세계 지역에 대한 비필수적인 해외여행 제한 및 해외여행중인 자국민 조기 귀국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3.17)</li> </ul>
1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7~4.13 루손섬 전체 봉쇄·격리 조치 시행(필리핀 대통령, '20.3.16)</li> <li>▶ 해외노동자, 외국인 제외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필리핀 외무부, '20.3.18)</li> </ul>
12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이탈리아, 이란 여행 자제 권고(인도 보건·가족복지부, '20.2.26)</li> <li>▶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인도대사관 '20.2.24)</li> </ul>
13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이탈리아, 이라크-터키 출도착 항공 전면 중단(터키 보건부, '20.2.29)</li> <li>▶ 해외여행 자제 권고(터키 보건부, '20.3.11)</li> </ul>
14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저위험국가'로 분류, 목적제한 없이 여행 가능( '20.6.23)</li> <li>▶ K-ETA를 통한 여행 가능( '22.4.1)</li> </ul>
15		카자흐스탄	▶ 한국 포함 감염 발생 27개국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카자흐스탄 보건부, '20.2.6)
16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으로의 여행 제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20.3.9)
17		오만	▶ 자국민 해외 출국 금지(오만 최고위원회, '20.3.18)
18		이란	▶ 외무부 한국 여행 자제 권고(이란 외무부, '20.2.29)
19		쿠웨이트	▶ 2.7일부터 2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입국 중단, 국민 대상 비필수적 해외여행 금지 권고( '21.2.7)
20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 항공 운항 중지. 한국여행 자제 권고(이스라엘 보건부, '20.2.23)
21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생 국가 여행 자제 경고(환경관광부, '20.1.31)</li> <li>▶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방문중지)으로 지정(국가비상대책위원회, '20.3.2)</li> <li>▶ 몽골 국경 봉쇄 해제 및 출입국 허용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상 중(몽골외교부, '21.6.3)</li> <li>▶ 코로나19 번이 확진자 증가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보건부, '21.9.3)</li> </ul>
22	미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61개국 국가 대상 4단계(여행금지)에서 3단계(여행재고)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20.6.8)</li> <li>▶ 한국 여행경보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Exercise Normal Precautions)'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20.6.8)</li> <li>▶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Precautions)'로 상향 조정(미 국무부, '21.8.2)</li> <li>▶ 한국 여행경보 3단계 '여행재고(Reconsider Travel)'로 상향 조정( '21.10.12)</li> <li>▶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로 하향조정( '21.11.23)</li> <li>▶ 한국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Do not travel)'로 상향 조정(미 국무부, '22.2.14.)</li> <li>▶ 한국 여행경보 3단계 '높음'으로 하향 조정(미 CDC, '22.4.18.)</li> <li>▶ 한국 여행경보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Exercise normal precautions)'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22.4.18.)</li> </ul>
23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행 권고사항(21.12.15, 4주간 시행)</li> <li>- 1단계 : 안전유의(Exercise normal security precautions)</li> <li>* 전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및 해외여행관련 위기단계별을 3단계(Avoid non-essential travel)에서 2단계(Practise special precautions)로 완화(22.2.27)</li> </ul>
24	구주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 여행 경고(20.12.16)</li> <li>* 코로나19 위험지역 대상 신호등제 도입을 통해 여행 위험, 경고, 주의 등 표시</li> <li>▶ 2021.1.1.부터 모든 여행 목적의 한국인 입국 허용</li> <li>▶ 모든 해외 여행 경고 해제 (22.3.3~)</li> </ul>
25		프랑스	▶ 한국 여행등급 1단계(정상)에서 3단계(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 권고)로 격상(프랑스 외무부, '20.2.25)

26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 (영국 외무부, '20.3.17)</li> <li>▶ 해외여행중인 영국국민 즉시 귀국 권고 (영국 외무부, '20.3.23)</li> <li>▶ 여행금지 권고 해제( '20.7.4)</li> </ul>
27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여행자제 권고(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관광청, 외교부, '20.2.26)</li> <li>▶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권고(러시아관광청, '20.2.27)</li> <li>▶ 모스크바 제외 항공운항 제한(러시아교통부, '20.3.1)</li> <li>▶ 국제항공노선 운항 전면중단(러시아연방항공청, '20.23.27)</li> <li>▶ 국제항공노선 일부 운항 재개( '20.8.1)</li> <li>▶ 방한항공노선(모스크바-인천) 운항 재개( '20.9.27)</li> <li>▶ 방한항공노선(모스크바-인천) 운항 재중단( '22.3.10~)</li> </ul>
28		벨기에	▶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하지 말 것을 권고(벨기에 외무부, '20.3.2)
29	대양주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 발령(호주 외교통상부, '20.4.1)</li> <li>▶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예외적 경우 제외 모든 해외 출국금지조치 발효(호주 외교통상부, '20.3.25)</li> </ul>



## 참고4

## 한국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7]

No	시행일	국가	관리 조치
1	'20.2.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및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중지</li> </ul> </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li> <li>-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 시행</li> <li>-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연락처 확인</li> <li>-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2주간 앱을 통해 상태 의무보고</li> </ul> </li> </ul>
		전세계	▶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 이용 중지
2	'20.2.12	홍콩 · 마카오	▶ 특별입국절차 시행
3	'20.3.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중지</li> <li>▶ 일본 주재 모든 공관 발급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사증 효력 잠정 정지</li> <li>▶ 신규 비자발급 심사강화</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4	'20.3.12	이탈리아 · 이란	▶ 특별입국절차 시행
5	'20.3.15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영국 · 네덜란드	▶ 특별입국절차 시행
6	'20.3.19	전세계	▶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확대 시행
7	'20.3.22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발 입국객 전원 대상 별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li> <li>* 무증상자 외국인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li> <li>* 무증상 내국인 : 자가격리,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li> </ul>
8	'20.3.2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발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li> <li>▶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음성판정 시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 및 한국 내 체류 보장</li> </ul>
9	'20.4.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입국자(내 · 외국인)는 14일 자가격리</li> <li>*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국익, 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제외)</li> </ul>
10	'20.4.13	아 · 태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 지역 151곳 중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 · 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li> <li>▶ 4.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 · 복수사증 효력 잠정 정지.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li> <li>▶ 단기취업(C-4), 취업 · 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li> </ul>
11	'20.4.13	미국	▶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
12	'20.7.13	방역강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li> <li>* 해당국가 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li> </ul>
13	'20.7.20	방역강화 대상국	▶ 기존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 7.20일부터 2개 국가 추가
14	'20.7.31	재입국 외국인 관리 필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파악, 입국 심사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할 경우(관내 고시원, 모텔 등) 시설격리</li> <li>▶ 난민 신청자 중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 대상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li> </ul>
15	'20.7.31	특별 입국대상자	▶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 기재 의무화
16	'20.8.3	방역강화 대상국 및 러시아 출항 선원	▶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
17	'20.8.10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해지</li> <li>▶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사증제한 해지</li> <li>▶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해지</li> </ul>

18	20.8.17	전세계	▶ 8.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한국정부의 방역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부담
19	20.8.24	전세계	▶ 8.24일 0시부터 상대국가의 한국인 대상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정도 및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유입 외국인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부담 조치 - 126개국 중 58개국이 한국인 환자 대상 일부지원, 66개국이 전액지원 중(12월 기준)
20	20.9.30 ~ 10.4	전세계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 계속 실시
21	20.12.23 ~ 21.1.7	영국, 남아공	▶ 검역강화 : 입국 시, 격리해제 전 검사, ▶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 '12.23~' 21.1.21) ▶ 입국심사 강화 및 발열 기준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
22	21.1.4	전세계	▶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공항입국자 1.8일부터, 항만입국자 1.15일부터) ▶ 해외입국자 시설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3	21.1.4	영국, 남아공	▶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 중단,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 중단
24	21.1.12	영국, 남아공	▶ 영국·남아공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음성 확인까지 격리
25	21.1.12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6	21.1.18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 시기를 1일 이내(당초 3일)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 강화
27	21.2.8	아프리카 전역	▶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외국인→내·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28	21.2.11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 PCR 검사 3회 실시 - 입국전(음성확인서) → 입국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 격리해제 전 ▶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및 격리 강화(전수 1일실 격리)
29	21.2.11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을 고려하여 방역 강화국 지정 및 주기적 조정. 항공편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 격리면제제도 원칙적 중단
30	21.5.4	인도	▶ 1주일간 시설격리 강화 (입국시) PCR 입국 확인서 제출 → (입국후) 7일간 시설격리(1일 내 진단검사+6일차 진단검사) →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해제전 검사)
31	21.5.5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 충족시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조정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 실시(6~7일차, 12~13일차),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철저히 준수,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예정 ※ 단,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시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실시
32	21.5.11	인도	▶ (검사) PCR 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 직후(임시시설), 시설퇴소 전(임시시설), 격리해제 전(지자체) (격리) 7일 임시시설 + 7일 자가격리
33	21.7.4	인도네시아	▶ PCR 음성 확인서 미 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34	21.7.5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회수 단축 : [기존] 4회 → [변경] 2회 -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용 1회, 입국 후 6~7일차 1회
35	21.7.5	백신 미접종 입국자	▶ PCR 검사 실시 총 3회 : 입국 72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1회, 한국 입국 후 1일 내, 격리 해제 전 1회
36	21.7.5	예방접종확인서, 음성확인서 모두 미제출자	▶ 격리기간 단축 : [기존] 14일간 시설격리 → [변경]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37	21.7.15	전세계	▶ 내국인 포함 모든 입국객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음성확인서 미 소지시,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제한
38	21.7.28	모든 외국인 유학생	▶ PCR 검사 3차례 이상 실시 의무화 - 입국 전 1차 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장소 관할보건소에서 2차 검사 실시 - 14일 자가격리 종료 후 3차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39	21.8.1	변이유행국 (26개)	▶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

			콜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40	21.8.27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 시, PCR 검사 추가 1회 실시 -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신설), 입국 후 6~7일차(총 3회)
41	21.9.1	람다 변이유행국 (36개)	▶ 해외 예방 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제외 *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필리핀, 가나, 나미비아, 미얀마, 오만, 요르단,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페루
42	21.9.10	페루 · 칠레	▶ 내국인 ·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시설격리조치 강화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1일 내 진단검사+6일차 진단검사) -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 해제 전 검사) * 단기 체류 외국인은 현행유지(14일 시설격리)
43	21.10.1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20개)	▶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44	21.10.7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 ·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대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국내 예방접종시스템(Coov)를 통해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 가능
45	21.11.1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16개)	▶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46	21.11.28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8개국)	▶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 비자 발급 제한, 10일 시설격리 조치,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후 입국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실시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47	21.12.3	전세계	▶ 접종 여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 의무화, PCR 검사 3회 실시(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48	21.12.3	나이지리아	▶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 비자 발급 제한, 10일 시설격리 조치,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후 입국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실시
49	21.12.9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국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를 했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대상 국내에서 3차(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도록 국외 접종력 등록 실시 - 방역패스 적용을 받아 재입국 또는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적용
50	21.12.10	가나 · 잠비아	▶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 비자 발급 제한, 10일 시설격리 조치,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후 입국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실시
51	21.1.12	핀란드,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터키	▶ 항공편 서킷브레이커 발동 - (정기편) 좌석점유율 60% 제한, (부정기편) 운항 인가 불허 * 적용 항공편 : AY041(핀란드, 1.14~20), HY511(우즈베키스탄, 1.14~20), OZ574(우즈베키스탄, 1.15~21), OZ568(몽골, 1.17~21), KE624(필리핀, 1.14~20), OZ704(필리핀, 1.15~21), TK090(터키, 1.14~20)
52	22.1.20	전세계	▶ 출국일 이전 72시간 → 48시간 내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53	22.2.4	전세계	▶ 모든 입국객 격리기간 10일 → 7일로 단축(한·싱 VTL 통한 입국객 제외)
54	22.2.4	아프리카 11개국	▶ 해당국가 출발 · 체류 · 경유가 확인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허용 및 임시시설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7일 격리 및 입국 후 PCR 검사 3회 등)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55	22.2.21	전세계	▶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활용 관리방식 중단 - 기존과 동일하게 △ 격리,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1일차 · 격리 해제 전 검사 유지

56	22.2.21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특별 항공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범운영( '22.2.21~3.11)</li> <li>- 항공기 탑승 전 사전 검역정보(여권, 입국·체류, 예방접종, PCR 검사, 건강 상태)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검역절차 대체 가능</li> <li>* 적용 항공편 : 일본 25편(도쿄·나리타·후쿠오카 발), 미국 21편(뉴욕·사이판), 중국 1편(장춘), 싱가포르 1편(창이)</li> </ul>
57	22.3.2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에 백신 접종정보를 기등록한 경우</li> <li>- 백신 미접종자 및 고위험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발 모든 입국객,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대로 7일 격리</li> <li>※ 백신접종 인정기준 : 2차 접종 완료 후 14일~180일 이내, 3차 접종 완료자</li> <li>- (백신종류) 화이자, 모더나, AZ, 안젠,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실드, 코백신, 코보백스</li> </ul>
58	22.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직접 접종이력 및 증명서 첨부 시 국내 입국 가능</li> <li>- 입국 후 방역교통망(차차, 방역택시, KTX 전용칸) 제도 중단( '22.4.1~)</li> <li>- 모든 입국자 대상 3회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간소화 기 시행( '22.3.10~)</li> </ul>
59	22.5.23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간소화</li> <li>-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li> <li>→ (변경)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li> </ul>
60	22.6.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입국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간소화</li> <li>- (기준) 1일 이내 PCR 검사 필수, 6~7일차 자가 신속항원검사 의무 실시</li> <li>→ (변경) 3일 이내 PCR 검사 필수, 6~7일차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li> <li>▶격리의무 면제 접종 완료자 기준 변경</li> <li>- (기준)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3차 접종자 → (변경) 2차 접종 후 14일 경과</li> <li>▶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li> <li>- (기준) 만 6세 미만 → 만 12세 미만</li> </ul>
61	22.6.8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li> <li>- 단, 입국 전·후 2회 PCR 검사는 유지</li> <li>(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li> <li>(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li> </ul>

※ ('22.4.1.일 시행) 사증면제 잠정 정지 국가·지역(16곳)

구분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국가
아시아 (7)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쿠웨이트, 타이베이, 홍콩
미주 (3)	그레나다, 파나마, 페루
오세아니아 (6)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통가



참고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6.7 기준]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중화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코로나19 활용 외교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백신 지원 진행 중</li><li>○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 백신 국민 접종 중</li><li>○ 자국 제약업체 시노백 백신 일반승인( '21.2.6)</li><li>○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lt;코로나19&gt; 백신 접종 기술 가이드라인(제 1판) 발표( '21.3.29)</li><li>○ 중국 내 백신 부스터샷 추진( '21.10.11)</li><li>○ 중국 내 백신 접종현황</li><li>- (1,2차 통합) 333억 8391.8만회( '22.6.4), (2차 접종완료) 12억 5685.7만회( '22.6.1)</li></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홍콩정부 총 2,250만 회 분(홍콩인구 3배수)의 백신 확보</li><li>- 중국 시노백, 미국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각 750만 회 분량 백신 구매 계약완료</li><li>○ 코로나 백신 관련 원스톱 웹사이트(<a href="https://www.covidvaccine.gov.hk/en/">https://www.covidvaccine.gov.hk/en/</a>) 운영</li><li>○ 백신수급 및 접종 현황</li><li>- 시노백 100만 회분, 화이자 백신 134만 회분 수급완료( '21.3.7일 기준)</li><li>- 우선접종대상 370만 명 대상 접종시행( '21.2.26-)</li><li>1) 전염병 방지 관련 의료진 및 직원</li><li>2) 60세 이상 노인층 (70세 이상 노인동반 보호자 최대 2명 접종가능)</li><li>3) 노인 및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li><li>4)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자 5) 국경간 운송·이동 관련 종사자(운송트럭 운전자, 항공승무원, 선원 등)</li><li>6) 식음료, 슈퍼마켓, 택배운송업, 대중교통 운송업, 건설업, 관광업 등</li><li>- 만 30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백신접종 대상 확대( '21.3.16-)</li><li>- 포장결함으로 일시중단(3.24)되었던 화이자 백신 접종 재개( '21.4.5-)</li><li>- 만 16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백신접종 대상 확대( '21.4.23-)</li><li>○ 29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민간클리닉, 정부병원 의료시설, 요양병원 등 4개 채널에서 접종</li><li>○ 정부 플랫폼 'iAM Smart+' (<a href="https://www.iamsmart.gov.hk/en/">https://www.iamsmart.gov.hk/en/</a>)에서 온라인 백신접종 예약 가능, 접종 후 디지털 증명서 발급 가능 등</li><li>○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을 위한 HK\$ 10억 상당의 보상기금 조성</li><li>○ 시노백 백신 3세~17세 대상 접종 긴급 승인( '21.6.5)</li><li>○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자 대상 3차 부스터샷 접종 시행( '22.1.1)</li><li>○ 코로나19 백신접종률( '22.6.1 기준)</li><li>- (1차) 6,702,235명 (전국민 대비 92.1%) / 바이온텍 화이자, 시노백</li><li>- (2차) 6,336,938명 (전국민 대비 87.1%) / 바이온텍 화이자, 시노백</li><li>- (3차) 3,930,874명 (전국민 대비 57.9%) / 바이온텍 화이자</li><li>- (4차) 111,187명 / 바이온텍 화이자</li></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백신 수급현황</li><table><tr><th>구분</th><th>BNT (화이자)</th><th>아스트라 제네카</th><th>모더나</th><th>메디젠 (高端)</th><th>총합계</th></tr><tr><td>수량</td><td>1,822</td><td>1,604</td><td>1,931</td><td>567</td><td>5,923</td></tr></table><li>○ 백신 접종현황 ( '22.6.5 기준)</li><li>- (1차) 20,908,631명 (전국민 대비 90.07%)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화이자</li><li>- (2차) 19,049,515명 (전국민 대비 82.06%)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화이자</li><li>- (3차) 15,639,391명 (전국민 대비 66.49%)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화이자</li><li>- (4차) 10,757명 (전국민 대비 0.06%) / 모더나, 메디젠, 화이자</li><li>○ 예방접종자문위원회, 백신접종 신규 권고안 발표( '22.4.20)</li><li>- 6~11세 아동(1·2차), 12~17세(3차), 65세 이상(4차), 면역 결핍 성인(5차)</li></ul>	구분	BNT (화이자)	아스트라 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高端)	총합계	수량	1,822	1,604	1,931	567
구분	BNT (화이자)	아스트라 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高端)	총합계								
수량	1,822	1,604	1,931	567	5,923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li><li>- 안제스(DNA 백신) :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개시</li><li>- 시오노기제약(유전자 재조합 백신) : 1-2차 임상시험 개시(12월)</li><li>- 타케다약품공업(유전자 재조합 백신) : 미 노바백스의 제조기술 이전</li><li>- KMI바이오로직스 : 내년 1월 1·2차 임상시험 동시실시, 2023년 실용화 목표</li><li>- 다이이치산쿄(mRNA 백신) : 내년 3월 임상시험개시 목표</li><li>○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총 856만회분/약 428만명 분)</li><li>- 미국 화이자 1억 9,400만회분(9,700만명분) / 6월 말까지 1억 회 이상 확보 예정</li><li>- 미국 모더나 5천만 회분(2,5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li>-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6,0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li>○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li><li>- 토아비화학(아비간) : 제조회사승인 신청(10.16)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 '20.12.21)</li><li>○ 화이자 백신, 후생노동성이 승인할 경우 16세 이상 접종으로 검토 중( '21.1.10)</li><li>○ 일본정부, 백신 접종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특별사이트와 공식 트위터 계정 개설( '21.1.22)</li><li>○ 백신접종 체제 및 운영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예정(1.27)</li></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p>○ 의료종사자 대상 선행접종 개시( '21.2.17~)</p> <p>- 우선 접종 의료 종사자 대상 2회 접종분을 포함한 필요량 공급(접종완료 7월말 전망)</p> <p>○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접종 개시 예정( '21.4.12~)</p> <p>- 고령자 대상 2회 접종분을 포함한 필요량 공급 완료 전망( '21.6월 말)</p> <p>○ 16세 이상 전체 접종대상자 접종분 확보 전망(~ '21.9월말)</p> <p>○ <b>현재 총 접종횟수 : 280,834,567회( '22.6.1 기준)</b></p> <p>* 도쿄/오사카에 백신 접종 센터 개설 운영( '21.5.24~)</p> <p>* 15개 광역자치체 독자 접종센터 설치 운영 중</p> <p>○ 64세 이하 일반접종, 지자체별·직장 및 대학 등 집단별 접종 개시( '21.6월 중)</p> <p>○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국에 배포 시작, 긴급사태선언 지역 우선 배분( '21.8.16)</p> <p>○ 의료종사자 및 고령자 대상 3차 접종 추진( '21.12월~)</p> <p>○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 및 계획 발표( '21.2.16)</p> <table border="1"> <thead> <tr> <th>접종순위</th><th>대상자</th><th>접종(예상)시기</th></tr> </thead> <tbody> <tr> <td>1</td><td>의료종사자 선행접종</td><td>희망자 약 4만명</td></tr> <tr> <td>2</td><td>의료종사자 우선접종</td><td>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td></tr> <tr> <td>3</td><td>고령자 우선접종</td><td>65세 이상 3천6백만명</td></tr> <tr> <td>4</td><td>기타</td><td>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td></tr> </tbody> </table> <p>○ 화이자 3차 백신접종 대상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 '22.3.24)</p> <p>- 4월부터 추가 접종 계획</p> <p>○ 후생노동성, 4차 백신 접종 방안 논의( '22.3.24)</p> <p>- 3차 접종 시작기점인 21년 12월 이후 6개월 경과 시점인 5월부터 화이자, 모더나 백신 중심으로 4차 백신 접종 추진 계획</p> <p>- 정부, 4차 접종 대비 화이자 7,500만 회분, 모더나 7,000만회 분 등 총 1억 4,500만회 분 구입 예정</p> <p>○ 노바팍스 사 백신 국내사용 승인 심의 예정( '22.4.18)</p> <p>- 승인 확정 시 1억 5천만회 분량의 공급계약 체결 예정</p> <p>○ 후생노동성, 4회차 접종은 60세 이상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한정( '22.4.27)</p> <p>- 중증 질환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로 한정하여 무료접종 실시, 5월 말부터 시작하며 4차 접종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p> <p>○ <b>노바팍스 사 백신 국내사용 개시( '22.5월~)</b></p>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이중동	태국	<p>○ 코로나19 백신 2.14일 첫 접종 준비, '머프롬'앱 등록 필수(1.25)</p> <p>* 2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만 도스 도착, 의료진 우선 접종, 2.12일까지 머프롬 앱을 이용하여 사전 등록 필요</p> <p>○ 2월말 시노백 백신 20만 도스 도입, 향후 순차적으로 타 백신 도착 예정('21.2.15)</p> <p>○ 시노백(20만), 아스트라제네카(11만7천) 백신 첫 출하 물량(총 31만 7천 회분) 태국 도착('21.2.24)</p> <p>○ 정부, 중국과 아세안 거주 화교대상 백신접종센터 설립 협의('21.3.9)</p> <p>○ 태국산업연맹, 정부와 별개로 시노백 백신 10만 회분 주문('21.3.19)</p> <p>○ 태국산 코로나19 백신 "NDV-HP-S" 첫 임상시험 승인('21.3.22)</p> <p>○ 태국 식약청,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등록 승인('21.3.25)</p> <p>○ 정부, 민간병원 총 1천만 회분의 백신 자체 수입 허용('21.4.11)</p> <p>○ 일본 코로나 치료제 '아비간' 200만정 태국 도착( '21.4.26)</p> <p>○ 모더나, 태국 식약청에 백신 등록 신청( '21.4.29)</p> <p>○ 태국 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월부터 공급 예정( '21.5.6)</p> <p>○ 시노백 백신 총 600만회 분 태국 도착( '21.5.20)</p> <p>○ 보건부, 태국 내 체류 중국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준비( '21.5.20)</p> <p>○ 5.31일부 18~59세 일반 국민 백신 접종 예약 시작</p> <p>- 보건소, 지역병원 등 의료시설 또는 라인, 머프롬 앱을 통한 예약접수 시작</p> <p>○ 전국 76개 주, 6.14일부터 일반국민 대상 백신접종 예약 실시('21.5.30)</p> <p>○ 방콕시, 백신 부족으로 6.15 이후 예약된 백신 접종 연기('21.6.13)</p> <p>○ 시노팜 백신 100만회 분 도착, 접종 시작('21.6.25)</p> <p>○ 공중보건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 높이기 위해 교차 접종 승인('21.7.13)</p> <p>○ mRNA 백신(화이자) 접종 시작('21.8.5)</p> <p>○ 미국, 태국에 500만 달러 규모 코로나19 지원금과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 추가 지원('21.8.10)</p> <p>○ 태국 자체개발 ChulaCov19 백신, 3차 임상시험 개시('21.8.23)</p> <p>○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 접종목표 달성 가능 예상('21.8.25)</p> <p>- 8월(시노백 65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580만 회분, 화이자(미국 기증 분량) 150만 회분 및 시노팜 100만 회분)</p> <p>- 9월(시노백 6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최소 700만 회분, 화이자 200만 회분)</p> <p>- 10월(시노백 6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최소 700만 회분, 화이자 800만 회분)</p> <p>- 11월 및 12월(화이자 각 1,000만 회분)</p>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연말까지 2차 접종 70% 목표('21.11.18일 기준, 58.05%)</li> <li>○ 보건부, 22년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계획 준비 중('21.12.8)</li> <li>○ 2022년 내 전 국민 80% 백신 접종 완료 목표 수립('21.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70% 이상 접종을 완료한 주가 총 18개로, 2022년에는 전 국민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 수립(보건부)</li> </ul> </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인 장기 거주자는 백신 무료 접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분 '20.12월 말부터 접종, 21년 말까지 모든 사람 목표, 의료 종사자, 노인 및 취약계층 우선 접종</li> </ul> </li> <li>○ 정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3분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li> </ul> </li> <li>○ '21.1.27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개시</li> <li>○ 보건부,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조기 접종 허용 계획('21.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상황 : 학업 및 업무, 중환자 돌봄, 해외진료 필요 등</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 45~59세로 확대</li> <li>○ 45세 미만 싱가포르 거주자, 6월부터 백신 접종 예약 신청 시작 계획</li> <li>○ 보건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선택 가능 발표</li> <li>○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기, 1차 접종 후 6~8주 후로 연기('21.5.21)</li> <li>○ 코로나19 백신 아시아 최초 전 국민의 50% 이상 1차 접종 완료('21.6.19)</li> <li>○ 6.18일부터 24개 시설 의료시설에서 시노백 백신 접종 가능</li> <li>○ 6.26일부터 백신 접종 가속화, 현재 일일 투어량에서 70% 증가한 일일 8만회 투어 계획</li> <li>○ 중국 시노팜 백신 유료 접종 실시 예정('21.7.28)</li> <li>○ '21.8.10일부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대상 사전 예약 없이 백신 접종 가능</li> <li>○ 전 인구 대비 89% 2차 접종 완료 및 60% 부스터 샷 접종 완료('22.2.5)</li> <li>○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용 바이러스 치료제인 팩스로비드(Paxlovid) 사용 승인('22.2.3)</li> <li>○ 전 인구 대비 90% 2차 접종 완료 및 64% 부스터 샷 접종 완료('22.2.13)</li> <li>○ mRNA 계열 백신인 노바백스(Novavax) 성인대상 사용 승인('22.4.14)</li> <li>○ 코로나대책위원회, 80세 이상 노인 및 의료 취약계층 대상 4차 접종 허용('2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스터샷(3차) 접종 후 5개월 뒤 2차 부스터샷(4차) 접종 강력 권장</li> </ul> </li> <li>○ 전 인구 대비 92% 2차 접종 완료 및 76% 부스터 샷 접종 완료('22.5.28)</li> <li>○ mRNA 계열 백신인 누박소비드(Nuvaxovid) 승인 및 접종 개시('22.5.18)</li> <li>○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센터 운영('22.5.24)</li> <li>○ 전 인구 대비 92% 2차 접종 완료 및 76% 부스터 샷 접종 완료('22.6.3)</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러시아 중국산 백신 1,830만 도즈 공급 계약 체결(1.26)</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월 의료진 등 50만명 1차 접종, 4~8월 고령자고위험군 등 940만명 2차 접종, 5월~'22년 2월 18세 이상 성인 대상 3차 접종, 전국 600개 접종센터에 백신 보관소 설치 및 접종</li> </ul> </li> <li>○ '21.2.26일부터 전국 600여개의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시작</li> <li>○ 보건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분 도착('21.2.21), 2.24일부터 접종 개시</li> <li>○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도입 검토('21.4.16)</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차 신청 접수 개시('21.5.21)</li> <li>○ 21년 8월 말~9월 초부터 사전예약 없이 백신 접종 실시 예정</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노젠(Nanogen) 제약사,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임상시험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2021년 5월 출시 계획</li> </ul> </li> <li>○ '21.2월 말까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490만 회분 확보 예정</li> <li>○ 베트남 첫 번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1만 7,600회 분량 2월 24일 도착</li> <li>○ 3.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21.3.23)</li> <li>○ COVAX, UNICEF로부터 자원받는 170만 회분의 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5.16. 도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만 회분은 '21.4.1. 도착</li> </ul> </li> <li>○ 총 1억 1천만회분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확보 발표('21.5.14)</li> <li>○ 중국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21.6.9)</li> <li>○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 자체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출시 임박('21.6.23)</li> <li>○ 모더나 백신 사용 긴급 승인('21.6.29)</li> <li>○ 미국 지원 모더나 백신 200만회분 하노이 도착('21.7.10)</li> <li>○ 한국 10월 경 백신 100만회 분 지원(일자 미정)</li> <li>○ 미국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바이오엔텍 150만개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지원('21.10.4)</li> <li>○ 정부, 헝가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만개 구매 결정('21.10.7)</li> <li>○ 12~17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승인('21.10.14)</li> <li>○ 한국 포함 세계 각국에서 베트남에 코로나 백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0.13(수) 한국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도즈 도착</li> <li>- '21.10.19(화) 헝가리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만 도즈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 도즈 지원</li> </ul> </li> <li>○ 인도 코바신 백신 긴급 사용 승인('21.11.10)</li> <li>○ 22년 중반까지 모든 성인 대상 부스터샷 접종 완료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부터 50대 이상 대상자, 기저질환자, 의료진 등에 대해 부스터샷 접종 진행 중</li> </ul> </li> <li>○ 보건부, 모더나 백신 유효기간 2개월 연장('2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7개월 → 9개월로 연장</li> </ul> </li> <li>○ 팜민썬 총리,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검토('22.3.18)</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13차 회의에서 4차 접종 검토 발언. 필요 시, 5차 접종에 대한 연구 진행 요청</li> <li>○ 나트랑 파스티르 연구소, 비강 스프레이 형태의 코로나19 백신 검사 실시</li> <li>○ 하노이, 호치민시에서 5~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첫 실시('22.4.13~)</li> <li>- 도시 전역에 109개의 백신 접종소 설치</li> </ul>
	캄보디아	○ 1,300만명(인구 대비 85.33%) 코로나 2차 예방접종 완료('21.10.23 기준)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2021년 백신접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진·군/경·법조인·공공서비스 종사자('21.1~4), 취약계층 일반 국민 등('21.4~'22.3)</li> </ul> </li> <li>○ 자카르타주, 백신 접종 거부시 벌금 5백만 루피아 부과</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및 대상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1.1월~4월) : 의료/보건 종사자 130만명 및 공무원 174만명 대상 접종</li> <li>- 2차 : 18~59세 연령층</li> </ul> </li> <li>○ 국내산 Merah Putih 백신, 3월경에 Biofarma를 통해 임상시험 진행 예정</li> <li>○ '21.2.17일부터 5월까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60세 이상 고령층 9백만명 대상 2차 백신 접종 실시</li> <li>○ 식약청(BPOM), 시노백 긴급사용승인(EUA) 발급('21.2.16)</li> <li>○ 전국 10개소에서 고령층과 관광업종종사자 위한 드라이브 스루 무료백신접종 시행</li> <li>○ 보건장관: 백신부족으로 4월 접종 지연 불가피('21.3.27)</li> <li>○ '21.3.25 시노백 백신 1600만 도즈 확보, Covax통해 확보한 AZ 포함 총 5760만 도즈 확보</li> <li>○ 민간주도백신접종(VGR), 5.18일부터 시행, 시노팜 백신 1,500만 도즈 확보('21.5.19)</li> <li>○ '21.5.16부터 사용이 일시 중단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재허가('21.5.27)</li> <li>○ 자카부담 개인 민간주도백신접종(VGR Individu)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보건 장관령 발표</li> <li>○ 백신 수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8.30(월) 시노백 원액 920만 도즈 도착</li> <li>- '21.9.1(수) 아스트라제네카 583,400 도즈 도착</li> <li>- '21.9.2(목) 화이자 1,195,740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500,000 도즈 도착</li> <li>- '21.9.4(토) 아스트라제네카 207,000 도즈 도착</li> <li>- '21.10.13(수) 아스트라제네카 688,800 도즈 도착</li> <li>- '21.10.14(목) 화이자 601,380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672,600도즈 도착</li> <li>- '21.10.17(일) 화이자 250만 도즈 도착</li> <li>- '21.10.19(화) 일본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24,000 도즈 도착</li> <li>- '21.10.20(수) 호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20만 도즈 및 일본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24,000 도즈 도착</li> <li>- '21.10.21(목) 일본으로부터 화이자 1,210,950 도즈 및 아스트라제네카 698,090 도즈 도착</li> <li>- '21.10.22(금) 일본으로부터 화이자 1,182,970 도즈 및 아스트라제네카 844,820 도즈 도착</li> <li>- '21.10.25 (월) 아스트라제네카 684,000 도즈 도착 (99 도입) *뉴질랜드</li> <li>- '21.10.26 (화) 시노백 100만 도즈 도착 (100 도입) *중국,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1 도입)</li> <li>- '21.10.27 (수)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2 도입)</li> <li>- '21.10.28 (목) 화이자 677,430 도즈 도착 (103 도입),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4 도입)</li> <li>- '21.10.29 (금) 화이자 1,263,600 도즈 도착 (105 도입), 아스트라제네카 1,336,200 도즈 도착 (106 도입),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7도입)</li> <li>- '21.10.30 (토) 모더나 819,600 도즈 도착 (108 도입) *네덜란드</li> <li>- '21.10.31 (일) 화이자 358,020 도즈 도착 (109 도입)</li> </ul> </li> <li>○ 정부, 백신접종기술지원위(ITAGI)와 2022년 부스터샷 접종 관련 검토 중('21.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의료계 종사자, ②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 ③ HIV 또는 암 환자 등 면역이 약한 국민들을 우선으로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예정</li> </ul> </li> <li>○ 2022년 초부터 6~11세 아동 시노백 백신접종 시작('21.11.9)</li> <li>○ 6~11세 아동 백신 접종, 시노백 사용 허용('21.12.11)</li> <li>○ 22년 연간 6,340만 도즈의 백신 보조금 수령 예정('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종류 : 모더나, 화이자, 시노팜</li> </ul> </li> <li>○ 2,360만명 부스터샷 접종 완료('2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르바란 귀국에는 부스터샷 접종이 필수이므로, 국민의 접종 관심도 급증</li> </ul> </li> <li>○ 보건부, 22년 3~4분기 인도네시아 자국 생산 백신 BUMN, Merah, Putih 사용 예정('22.5.31)</li> <li>○ 백신접종 현황 (22.6.5 기준, 통계청 발표 전국민 수 270백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접종인원 200,472,525명 (전국민 대비 - 74.2%)</li> <li>- (2차) 접종인원 167,699,028명 (전국민 대비 - 62.1%)</li> </ul> </li> <li>백신종류: Sinovac, AstraZeneca, Sinopharm, Moderna, Pfizer 등</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자정부·제약회사 간 3차 협약 승인, 7개 제약회사와 계약 예정, 올해 5~7천만명분 접종 예상</li> <li>○ '20년 11월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0만회분, '21년 5월 도착 예정</li> <li>○ 정부, 코백스 등 해외 여러 코로나19 백신 공급업체로부터 1억7천만회 분량 확보 완료, 올해 성인 약 7천만명 접종 가능</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2.28일 필리핀에 첫 코로나 백신 도착 (중국 정부가 기증한 시노백 백신 60만회 분), 3.1일부터 25만 명의 의료진 및 5만 명의 군인 우선 접종 시작</li> <li>○ 코백스 제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만7천회 분. 3.4일 필리핀 도착</li> <li>○ 정부, 올 연말까지 전국민의 70% 백신접종 완료 계획</li> <li>○ 중국 추가 기증 시노백 백신 40만회분 도착, 수도권, 세부, 다보요지역 우선배당 예정('21.3.24)</li> <li>○ 총 3백만회 분의 시노백 및 52만회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필리핀 도착('21.4.22)</li> <li>○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 계약체결 8월 인도 예정, 6월말 현재 총 1억1,300만회 접종분 확보</li> <li>* 화이자 4천만회분 시노백 26백만회분, 스푸트니크 1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7백만회분</li> <li>○ 모든 성인에 대한 부스터 샷 접종 시작('21.12.2~)</li> <li>- 2차 접종 후 6개월 경과자, 안센 백신은 3개월 경과자</li> <li>○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부스터샷 접종 간격 6~8개월로 단축('21.12.22)</li> <li>○ '22.2.14일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시작</li> <li>○ 보건부, 면역저하자 분류 성인 대상 2차 부스터샷 접종 개시('22.4.25~)</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3일부터 인도 내 백신 접종 시작 예정, 올해 8월까지 3억 명 접종 계획</li> <li>○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인도 최초 긴급사용 승인, '21.1.1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li> <li>○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로 18세 이상 75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토록 정책 변경('21.4.26)</li> <li>○ 인도산 '코백신', 2~18세 대상 임상 2·3상 돌입</li> <li>* 어린이·청소년 대상 접종이 집단면역 필수조건으로 판단, 성인 접종 조건으로 긴급 승인된 '코백신'에 대한 18세 이하 추가 임상 돌입</li> <li>○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백신 접종 확대 시행계획 발표('22.1.3~)</li> <li>- 15~18세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시작('22.1.3~)</li> <li>- 60대 이상 만성질환자 대상 부스터샷 접종 실시('22.1.10~)</li> <li>○ '22.1.3일부터 15~18세까지 백신접종 대상자 확대 (코백신만 허용)</li> <li>○ 2차 접종 완료 후 9개월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대상 부스터샷 접종 시작('22.4.10~)</li> <li>○ 5~14세까지 백신 접종 확대. 단, 코백신 코르베백스만 허용. ('22.4.27~)</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보건 당국, 시노팜(중국 국영 제약사) 백신 공식 등록( '20.12.9)</li> <li>- UAE에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실시('20.7월) 및 긴급사용 승인( '20.9월)</li> <li>- UAE 국민/거주자 중 우선 접종 대상자 백신 무료 접종 시작( '20.12.12~)</li> <li>* 우선 접종 대상자 :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의료진, 공항 근무자, 교사 등</li> <li>○ UAE 아부다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시작( '20.12.7)</li> <li>○ 두바이 보건 당국,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긴급 등록 및 두바이 국민/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21.12.23~)</li> <li>○ UAE 보건 당국,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1.21)</li> <li>○ UAE 보건 당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2.2)</li> <li>○ 16세 이상 모든 UAE 거주자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21.3.21~)</li> <li>- '20.12월부터 6주간은 취약계층(노인, 기저질환자 등), 의료업계 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li> <li>○ UAE G42* 그룹 및 중국 CNBG(시노팜), UAE 내 백신 생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출범('21.3.28)</li> <li>* G42 : UAE 아부다비에서 2018년 설립된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 확대('21.4.17)</li> <li>- 모유 수유 중 혹은 임신 계획 중인 여성,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 격리 해제 즉시 접종 가능</li> <li>○ 아부다비 보건 당국,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 승인('21.4.21)</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연령 확대 : 16세 이상→12세 이상('21.5.14~)</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21.6.29~)</li> <li>○ UAE 보건 당국,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7.4)</li> <li>○ 보건당국,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권고('21.7.7)</li> <li>○ 아부다비 거주 3~17세 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예약 없이 백신 접종 가능</li> <li>- 부스터 샷의 경우 아부다비 전 거주자 예약 없이 접종 가능</li> <li>○ 아부다비 거주자, 왓츠앱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약 가능 ('21.8.21~ )</li> <li>○ 두바이보건당국(DHA), 만성질환자 대상 백신 부스터샷 접종 권고('21.9.1)</li> <li>○ 보건당국, 자국민·거주자 대상 부스터샷 접종 촉구('21.10.26)</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가능 연령 확대 : 12세 이상→5세 이상('21.10.31~)</li> </ul>
	사우디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단계별 접종시작('20.12.15)</li> <li>- (1단계) 65세 이상 국민/거주자, 감염에 취약한 인력(의료진 등), 만성 질환자 등</li> <li>- (2단계) 50세 이상 국민/거주자, 보건의로 일반 종사자 등</li> <li>- (3단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거주자</li> <li>○ 보건당국,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 ('21.7.9)</li> <li>-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존슨&amp;존슨에 이어 4번째 승인</li> <li>○ 보건당국, 6~11세 대상 모더나 백신 접종 승인('22.4.26~)</li> <li>○ 50세 이하 면역결핍환자 대상 4차 백신접종 허용('22.5.10)</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슨&amp;존슨 백신 사용 승인('21.6.8)</li> <li>- 현재 쿠웨이트 내 접종가능 백신 :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amp;존슨</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현황, 접종 계획 발표('20.12.14)</li> <li>- 터키 당국은 현재 16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 중이며, 이중 가장 빠른 것은 1개 제약회사가 임상 1상 완료 후 2상 진행 예정('20.12.25)</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 국민 2,500만 명 총 2회 접종 가능한 약 5,0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완료(시노백)</li> <li>- 12월 25일 첫 접종시작, 2~3주간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 예정</li> <li>- 접종 대상 5개 그룹으로 분할하며, 의료종사자, 65세 이상부터 접종 시작</li> <li>- 모든 접종비는 정부 부담으로 무료 배포</li> <li>○ 백신 3차 접종지는 확진자와 밀접 접하여도 격리 의무에서 면제됨('22.1.12)</li> <li>○ 터키 정부 외국인 관광객도 터키에서 백신 접종 가능하다고 발표('22.1.12)</li> <li>○ 시노백 백신 긴급사용 승인 완료('21.1.13), 의료계 종사자 등 접종그룹 우선순위에 의거 접종 시작('22.1.14)</li> <li>○ 백신미접종자 대상 각종 시설(시외버스 극장, 강의 등) 출입제한 해제</li> <li>- 단, 비행기 탑승 이외에는 PCR 검사 결과 제출 필요</li> <li>○ 방역패스(HES코드) 폐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무증상자 PCR 검사 불필요, 학교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만 격리 후 정상 수업 진행('22.3.2.)</li> </ul>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OV Mobile 앱, 전자서류 부문에서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백신 접종 확인서 조회 기능</li> <li>○ 보건부, 4.26일부터 카자흐스탄 자체 개발 QazVac 백신 접종 시작</li> <li>○ 4월말 Sinopharm 백신 40만 도스 공급 완료, 5월 중 60만 도스 공급 예정</li> <li>- 백신을 구매한 Samruk Qazyna 국가펀드 직원에게 25만도스 접종 시행, 카자흐 국민에게 나머지 75만 도스 접종 시행 예정</li> <li>○ 스푸트니크 V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간격을 21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 단, 21일 이후 접종 시행하고자 하는 자 대상으로 백신 접종 가능</li> <li>○ 중국 자체 개발 시노백 바이오테크 백신 500,000도스 공급('21.6.1)</li> <li>- 현재 카자흐스탄 개발 QazVac, 러시아 개발 Sputnik V, 이집트 중국 개발 Hayat-Vax 백신 접종 가능. 미국 화이자 백신은 등록되었으나 아직 미공급</li> <li>○ 자체개발 2번째 백신인 Qazcovac-P, 임상 전 단계 통과.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발표, 곧 첫 번째 백신인 Qazvac 임상시험 상세 내용 발표 예정</li> <li>○ 보건부, 화이자 백신 공급에 대한 잠정 합의 : 2021 4분기 공급 예정(' 21.7.15)</li> <li>○ 보건부, 러시아 백신 'Sputnik Light' 임시 등록 증명서 발급( '21.7.12)</li> <li>○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협상 재개(' 21.7.16)</li> <li>○ 중국 시노팜 백신(1백만 도스) 카자흐스탄 도착('21.8.10)</li> <li>○ 보건부, 10월중 공급 될 화이자 백신은 먼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만 제공('21.8.10)</li> <li>○ 보건부, 카자흐스탄 내 백신 재접종 계획 관련 협의 중('21.8.10)</li> <li>○ 카자흐스탄 백신 QazVac, 키르기스스탄에서 최초로 공식 등록('21.8.19)</li> <li>○ 총리주재정부회의, 서카자흐스탄주 등 4개 지역에서 예방 접종 속도 증가 지시('21.8.18)</li> <li>○ 카자흐스탄 자체 생산 백신 QazVac, 3차 임상 실험 완료. 연말까지 200만 도스의 백신 생산 예정('21.8.27)</li> <li>○ 중국 VeroCell 백신 3백만 도스 카자흐스탄 도착</li> <li>○ 카자흐스탄 생물안전문제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 카자흐스탄 자체 개발 백신인 QazVac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 보도('21.9.24)</li> <li>○ '20.10.11일 기준, 카자흐스탄 승인 백신 5종 : Sputnik V, Qaz Vac, Hayat-Vax, Corona Vac, Sinopharm</li> <li>○ '21.10월 중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자 백신 25.9만 회분, 시노팜 11만회 분, 아스트라제네카 5만회 분 수령 예정</li> <li>○ '21.11.30일부 대국민 부스터 샷 시행 예정 발표('21.10.15)</li> <li>- 의료 종사자, 교사, 법 집행기관 종사자 등 위험집단과 60세 이상 고령자 중 항체 검사결과 음성인 대상을 우선 실시. 외국 선례를 참고하여 대국민으로 확대 시행 예정</li> <li>○ 보건부 차관, 12~18세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계획 발표('21.11.5)</li> <li>○ 21.11.8일 기준, 1,031명 확진. 총 누적 감염자 949,630명</li> <li>○ 알마티시, '21.11.21~11.30일 경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V, QazVac, Vero Cell) 재접종 실시 예정</li> <li>○ 보건부,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추가 접종 간격 9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21.12.9)</li> <li>○ 코로나19 확산 방지위원회, 전 연령 대 화이자 백신 접종 허용('22.3.24~)</li> <li>- 기존에 임산부, 50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만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li> <li>○ 누르술탄 시 쇼핑몰 내 운영 백신접종센터 폐쇄('22.3.28)</li> <li>○ '22.4.18일 기준 1차 백신 접종자 수9,473,336명 (인구 대비 52,63%), 2차 백신 접종 완료자 수 9,217,525명 (인구 대비 51.21%)</li> <li>○ 보건부 차관, 카라간다 의약품 공장에서의 Sputnik v 백신 생산 중단 발표('22.4.28)</li> <li>○ 22. 6.6 일 기준 1차 백신 접종자 수 9,509,050명 (인구 대비 52,83%), 2차 백신 접종 완료자 수 9,287,230명 (인구 대비 51,6%)</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 국가, 백신증명서 발급 계획 발표</li> <li>- 백신접종 시작('20.12.19) 이후 1.24일 기준 현재 인구 100명당 41.8회 백신 투여 완료</li> <li>- 노령층과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 대상 우선 접종 시작, 접종 후순위에 해당하는 그룹도 본인 희망 시 접종 가능, 정식적 학사 일정 운영과 대학입학 시험 일정으로 부모 동의하에 16~18세 그룹도 접종 시작</li> <li>○ 백신 2회차 접종자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 'Green Booklet' 발급</li> <li>○ 이스라엘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필수, 도착 후 의무자카격리 필수(해외 백신접종 확인서 인정 안함) 및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자가 의무격리 면제 신청 가능</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88,940회분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예정</li> <li>○ 중국에서 지원한 30만 회분 시노팜 백신 도착('21.2.23)</li> <li>○ COVAX 프로그램 25,740회분의 화이자 백신 도착('21.03.24)</li> <li>○ '21.4.5일부터 만 18~49세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1.4.3)</li> <li>○ 4.21일에 50,40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착('21.4.22)</li> <li>○ 중국에서 30만 회분의 시노팜 백신 도착('21.4.24)</li> <li>○ 몽골에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1.5.1)</li> <li>○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6.14일부터 임산부 및 16~17세 청소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21.6.14)</li> <li>○ 일본에서 무상원조로 84,240회분의 화이자 도착('21.6.16)</li> <li>○ 보건부, 6.28일부터 12~15세 청소년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실시</li> <li>○ 8월부터 코로나19 3차 접종 시작 관련 논의 중 ('21.7.7)</li> <li>○ 2만 회분의 Sputnik V 백신 도착( '21.7.14)</li> <li>○ 12~17세 55,780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 '21.7.19)</li> <li>○ UNICEF을 통해 일본에서 지원하는 155,610회분의 화이자 백신 도착( '21.8.6)</li> <li>○ COVAX 프로그램으로 117,000회분의 화이자 백신 추가 도착('21.8.13)</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차 접종 시작( '21.8.26)</li> <li>○ 5~11세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조사 중(11.2)</li> <li>○ 울란바토르 시민 30.7% 부스터샷 접종 완료('21.12.20)</li> <li>○ 보건부, 국민 대상 자발적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허용('21.12.23)</li> <li>○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율 66.5% ( '21.12.27)</li> <li>○ 총 896,958명(28.0%)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예방 접종 완료( '21.12.27)</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2.5.2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접종 : 전국민 대비 75.2%, 2차 접종 : 72.1%</li> <li>- 3차 접종 : 54.1% 4차 접종 : 125,477명(3.9%)</li> </ul> </li> </ul>
미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타항공,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운송 체계 구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내 위치한 대규모 물류창고 및 냉각시설과 의약품 수송관련 인증을 받은 세계 45곳 공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에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 완료</li> <li>- KLM Martinair Cargo, Virgin Atlantic Cargo와 협력</li> </ul> </li> <li>○ FDA, 12.18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더나 백신, 3만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2차 접종 시 94.1% 예방 효과 기록</li> </ul> </li> <li>○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원인 연구</li> <li>○ 사우스웨스트 항공, 전 직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은 연방정부 지원, 접종 비용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 항공사 부담 예정</li> </ul> </li> <li>○ 캘리포니아주, 3.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만성 신장·폐질환 등 기저질환 및 다운증후군 등 장애인 접종 가능(16~64세)</li> </ul> </li> <li>○ 화이자 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항체 보호 효과 3분의 2까지 떨어질 수 있음(2.17)</li> <li>○ 화이자, 임산부 대상으로 백신 안정성 입증 위한 임상실험 실시(2.17)</li> <li>○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파우치소장, 올 7월 말 모든 국민 접종 분량 확보 예상(2.18)</li> <li>○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효과가 8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발표. 3주 후 2차 접종을 할 경우 효과가 95%로 나타남(2.19)</li> <li>○ FDA,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만장일치로 긴급사용 승인 권고</li> <li>○ 바이든 대통령, 5월 말까지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 계획 발표(3.2)</li> <li>○ 5월 말까지 존슨앤드존슨 백신 1억회분 추가 확보. 모더나/화이자 백신 각각 2억회분 확보 예정</li> <li>○ 유나이티드·에미레이트 항공, 이르면 3.11일부터 직원들에게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li> <li>○ 청소년용 코로나 백신 올 가을, 어린이용(5~12세) 내년 1분기 개발 예정</li> <li>○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2~15세 긴급사용 승인( '21.5.13일부터 접종 시작)</li> <li>○ 캘리포니아주, 4.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li> <li>○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해제 (단, 희귀 혈전 위험성 문구 백신 라벨에 추가)</li> <li>○ 알래스카주,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관광객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li> <li>○ LA, 4.13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허용</li> <li>○ 코로나19 백신 예약 없이 약국 방문하여 접종 가능</li> <li>○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21.8.23)</li> <li>○ 미정부,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완료자 대상 부스터샷 접종 계획 발표( '21.9.20)</li> <li>○ 연방 공무원 및 100인 이상 기업에 75일 내 백신 접종 의무 발표(9.9)</li> <li>○ 미 정부, 화이자 접종 완료자 중 일부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부스터샷 접종 개시( '21.9.24)</li> <li>○ 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65.8%(218백만 명, '21.10.16. 기준)</li> <li>○ FDA 자문위원단, 백신 3개종(화이자, 모더나, 안센) 모두에 부스터샷 권고( '21.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모더나의 추가 접종 대상자가 2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경과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제한적인 것에 반해, 안센은 접종 후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짐</li> <li>- 화이자는 지난 9월 추가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안센과 모더나의 추가접종은 FDA와 CDC의 최종승인을 거친 후 11월 중 개시될 것으로 전망</li> </ul> </li> <li>○ FDA, 모더나( '21.10.20·안센('21.10.21)의 부스터샷 및 교차 접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센은 18세 이상 성인에만 접종 허용</li> </ul> </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정부, 화이자모더나 접종완료자 중 일부대상자(고령자, 취약계층 등) 및 안센 접종 완료 성인 모두에 대한 부스터 샷 접종 개시( '21.10.22)</li> <li>○ 뉴욕시, '21.11월부터 모든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직을 해야함</li> <li>- 동 조치로 현재 70% 대에 불과한 뉴욕시 공무원들의 1차 이상 백신 접종률을 크게 상향시킬 것으로 기대</li> </ul> </li> <li>○ 백악관, 5~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어린이 확진자 수가 미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14.8% 기록함에 따라,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을 추진 중임</li> <li>- FDA 자문단은 '21.10.26일 어린이용 백신 승인 문제를 논의 할 예정이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월 초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함</li> </ul> </li> <li>○ 5~11세 어린이 90만 명 1차 백신 접종 완료, 예약건수 70만 건( '21.11.12)</li> <li>○ 뉴욕시, 부스터샷 접종대상을 뉴욕시의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21.11.15.)</li> <li>○ 뉴욕주지사, 뉴욕주 전역 모든 요양원 및 어덜트케어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접종 의무화( '21.11.28)</li> <li>○ 화이자, 미국 FDA에 16~17세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 신청( '21.11.30)</li> <li>○ 모더나, 오미크론 맞춤형 부스터샷 백신 개발 착수( '21.12.1)</li> <li>○ 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70.4%(233백만명, '21.12.2 기준)</li> <li>○ FDA,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경과 16~17세 청소년 대상 코로나 부스터샷 긴급사용 승인(21.12.9~)</li> <li>○ 뉴욕시, 민간기업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21.12.27~)</li> <li>○ 뉴욕시, 5~11세도 백신 맞아야 실내 시설 출입 가능(21.12.14~)</li> <li>○ 뉴욕시, 12세 이상 백신 2차 접종 완료해야 실내 시설 이용 가능(21.12.27~)</li> <li>○ CDC, 12~17세도 부스터샷 승인(22.1.5)</li> <li>○ CDC,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간격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 최종 승인</li> <li>○ 미 대법원, 바이든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 무효화( '22. 1.13)</li> <li>○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 2차 부스터샷 접종 기능성 제기</li> <li>○ FDA,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완전사용 승인</li> <li>○ FDA, 모더나의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 성인 대상 접종 정식 승인(1.31)</li> <li>○ 백악관, 코로나 확진 즉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22.3.2)</li> <li>○ 화이자, FDA에 65세 이상 4차 접종 긴급승인 허가 신청( '22.3.15)</li> <li>○ 백악관, 연방정부의 무보험자 코로나 검사·치료 중단( '22.3.23)</li> <li>○ 미 FDA, 50세 이상 성인 대상 화이자, 모더나 4차 접종 승인( '22.3.30)</li> <li>○ 미 FDA, 코로나19 주사 치료제 '렘데시비르' 12세 미만에도 사용 승인(22.4.25)</li> <li>○ (22.5.26 기준 백신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58,312,266명 (전국민 대비 77.8%) / 화이자, 모더나, J&amp;J</li> <li>- (2차) 221,050,854명 (전국민 대비 66.6%) / 화이자, 모더나, J&amp;J</li> </ul> </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세계 두 번째 화이자 백신 캐나다 내 사용 승인('2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내 24만9천회 분 도착 예정, 도착 1~2일내 14개 지역서 무료접종 시작</li> <li>- 21년 9월까지 캐나다국민 전국민 접종 완료 계획(유학생 등 외국인 포함)</li> </ul> </li> <li>○ 백신(화이자)접종 개시(20.12.14)</li> <li>○ 보건부, 모더나(Moderna) 백신 승인('20.12.23), 연내 168천회분 도착</li> <li>○ 화이자 백신제조시설 확장계획으로 당분간 캐나다로의 백신 공급 지연 예정</li> <li>○ 연내 2000만 회분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동의(총 8천만 회분)</li> <li>○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바백스(4월0전) 백신 승인 예정</li> </ul> </li> <li>○ 백신수급 사태를 계기로 노바백스 백신 캐나다 국내 생산하기로 동사와 MO체결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빨라도 가을부터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li> </ul> </li> <li>○ 보건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이어 4번째. 존슨앤존슨(안센) 백신 승인(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 회분 선구매, 2800백만 회분 추가구매 가능하며 2분기 공급 시작 예정</li> </ul> </li> <li>○ 캐나다, 6월말까지 16세이상 전 인구 코로나백신접종 완료 계획 발표(3.18)</li> <li>○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NACI: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55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발표(3.29), 30세 이상자로 접종가능 연령 범위 확대(4.23) * 대부분 주는 40세, 퀘벡은 45세, BC주 30세 이상 대상</li> <li>○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AZ(아스트라제네카)백신 150만 회분 수령(3.30)</li> <li>○ (21.4.25 기준) 캐나다백신접종 29.0%(1회 이상 접종 인구), 접종분량 12,045,041회분, 공급물량 13,700,694회분</li> <li>○ 존슨앤존슨 백신 30만 회분 첫 수령( '21.4.28),화이자 100만, 모더나 65만 회분 금주 수령</li> <li>○ 세계 최초 화이자 백신 12~15세 대상 사용 승인( '2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22부터 온타리오주 12세~17세 화이자백신 접종 예약 시작</li> </ul> </li> <li>○ 캐나다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부작용 사망자 3명 발생( '21.5.4 기준)</li> <li>○ 온타리오주, 모든 성인 5.23일까지 백신접종 예약 가능 및 5월 말까지 성인인구의 65%가</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p>1차 접종 완료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21.5.4일 12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 후 온타리오주는 6월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계획. 일부 지역은 5.11일부터 사전예약 시작</li> <li>○ 퀘벡 백신여권 도입(2021.9.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필수서비스(술집, 체육시설, 식당 등)에 사용, 필수서비스는 미 적용</li> </ul> </li> <li>○ 캐나다,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산하 공공부문 종사자 및 항공·기차·선박 여행자 백신접종 의무화 발표(21.8.13 발표, 9월 중 시작 및 10월 말 접종 완료 계획)</li> <li>○ 트뤼도 총리, 캐나다 국민 부스터샷 접종을 위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확보 계약 체결 완료 발표 (21.8.19)</li> <li>○ 캐나다 보건부, 12세-17세 청소년 모더나 백신 접종 허용( 21.8.27)</li> <li>* 캐나다 내 화이자백신의 12세-15세 청소년 접종 승인은 2020.5월, 16세 이상 승인은 2020.12월</li> <li>○ 백신여권 도입 : 퀘벡(21.9.1), 매니토바(21.9.3), 온타리오(21.9.22), 브리티시컬럼비아(21.9.13), PEI( 21.10.5) * 연방정부 : 21년 가을 도입 예정</li> <li>○ 캐나다국립접종위원회(NACI),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 확대 발표(21.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원관련자, 80세 이상, 70-79세 이상자 특히 AZ 2회 혹은 안센 접종자, 의료관계자</li> </ul> </li> <li>○ 연방보건부, 화이자백신 부스터샷 18세 이상 주민대상 접종 승인(11.9),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승인(21.11.12)</li> <li>○ 캐나다, 어린이용(5세-11세)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21.11.19)</li> <li>○ 캐나다, 안센백신 전면 사용 승인(21.11.25)</li> <li>○ 온타리오주, 18세 이상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난 모든 성인 3차 부스터샷 예약 가능(21.12.20~)</li> <li>○ 온타리오주, 12세 이하거나 백신접종완료하고 감염된 자는 21.12.31부터 자가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증상발현일로부터 5일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완료하고, 무증상이며, 양성반응자와 살지않는 자가 코비드19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 불필요</li> </ul> </li> <li>○ 트뤼도 총리, 백신 3차 및 4차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총 1억 도스, 향후 2년간 각 95백만 도스씩 수급 계획</li> </ul> </li> <li>○ 보건부, 노바백스(Novavax) 백신 승인(22.2.17)</li> <li>○ 보건부, 퀘벡 소재 Medicago사가 개발한 Covifenz 백신 승인으로 캐나다산 백신 최초 사용 승인(22.2.24)</li> <li>○ 화이자·모더나사, 캐나다 정부에 5세 미만용 코로나 백신 사용승인 신청(22.5.25)</li> <li>○ 캐나다 보건부, 화이자사의 16세-17세 청소년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승인(22.6.1)</li> <li>○ (22.6.3 기준 백신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33,381,621명(전국민 대비 87.3%) / 화이자, 모더나, AZ</li> <li>- (2차) 31,413,594명(전국민 대비 82.2%) / 화이자, 모더나, AZ</li> </ul> </li> </ul>
대양주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내 백신접종 진행상황(전국 접종대상 인구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종 대상자 연령 : 5세 이상 (22.1.10~ 화이자 접종 시작 예정)</li> <li>- 부스터샷 대상자 연령: 16세 이상(2차 접종 이후 3개월 후부터 가능), 15세 이하 부스터샷 접종 불가</li> <li>- 호주식약청,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접종 승인</li> <li>- 부스팅 접종 11월 8일 시작.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노인보호시설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우선 대상 mRNA 방식의 화이자 및 모더나 투약 권장</li> </ul> </li> <li>○ 호주 백신접종 계획 및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정부 권고사항임 (의무 접종 아님)</li> <li>- 병원 및 약국을 통해 접종 예약가능하며, 대부분 운전 면허증만 제시하면 접종 가능</li> <li>- 접종처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쇄가능형태로 이메일로 발송, 웹/앱 확인 가능</li> <li>- 호주 정부 면역 등록(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시스템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을 처방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작( '2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시설 거주자, 16세 이상 면역 결핍성 질환 환자 및 50세 이상 원주민 우선 접종</li> </ul> </li> <li>○ (22.5.24 기준 백신접종 현황, 전국 12세 이상 접종 대상 인구수 대비 접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20,722,918명 (전국민 대비 94.78%)</li> <li>- (3차) 13,651,272명 (전국민 대비 62.44%)</li> </ul> </li> </ul>
구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파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 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 하루 만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영국 NHS는 과거 약품, 음식, 백신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당분간 백신접종 중단 권고</li> </ul> </li> <li>○ 임산부는 백신 접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롭다는 증거는 없으나 임산부대상 임상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임.</li> </ul> </li> <li>○ 최고 의료책임자, 새로운 변종이 백신이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 없다고 발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두 번째 접종 완료 7일 경과 후 면역력 생성</li> <li>○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 세계 최초 승인( '20.12.30) 및 1.4일 접종 시작</li> <li>○ 백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접종 전날 저녁 알코올 섭취 금지 권고(면역학 전문가)</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5일부터 일일 수십만명 이상으로 백신접종 확대 계획 발표</li> <li>○ 모더나 백신 사용승인( '21.1.8)</li> <li>○ 모더나 백신 영국발 및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는 것으로 발표</li> <li>○ 7월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완료예정(1차 접종 기준)</li> <li>○ 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 1차 접종 완료 및 일일 접종자 수 최고치 기록(66만명, '21.3.19)</li> <li>○ 4월 중순까지 목표대로 9개 우선순위 접종자 대상자 접종 완료 예정(의료종사자, 50대 이상 등 3,180만 명)</li> <li>○ 영국에서 세 번째로 사용 승인된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 '21.4.7)</li> <li>○ 안센 백신 영국에서 네 번째로 사용승인( '21.5.28)</li> <li>○ 화이자 백신 12-15세 청소년 대상 사용승인( '21.6.4) 및 접종 시작(' 21.9월)</li> <li>○ 40대 이상 부스터샷 접종 시작 및 16-17세 2차 접종 시작</li> <li>○ 잉글랜드 정부, 공공 의료진(NHS) 백신 접종 의무화</li> <li>○ 16세~17세 부스터 접종 예약 또는 워크인 접종 시작</li> <li>○ 영국 보건당국, 코로나19 두번째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용승인(' 21.12.31)</li> <li>○ 노바백스 백신, 영국에서 다섯 번째로 사용 승인( '22.2.3)</li> <li>○ 잉글랜드, 만 75세 이상, 요양원 거주자, 기저질환자 등 면역취약계층 대상 4차 접종 예약 시작</li> <li>○ 프랑스 발네바 백신, 영국에서 여섯 번째로 사용승인( '22.4.14)</li> <li>○ (22.6.6 기준 백신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53,486,907명 (전국민 대비 약 79.5%)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li> <li>- (2차) 50,003,659명 (전국민 대비 약 74.6%)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li> <li>- (3차) 39,750,799명 (전국민 대비 약 59.3%)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li> </ul> </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당국 산하 백신위원회, 백신 우선 접종 권고 초안 마련 및 관계 기관에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그룹 : 80세 이상 고령자, 양로원 혹은 요양원 거주자, 응급실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위험 그룹과 접촉이 빈번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 *</li> <li>우선 접종 대상 규모 : 860만명</li> <li>* 우선 접종 대상 중 65세 미만은 연령에 제한된 백신(예: 아스트라제네카)으로 접종 규정 (제 2조 2항, 3조 2항, 4조 3항)</li> <li>- 두 번째 그룹: 76-80세 고령자, 치매환자 돌봄시설 거주자 및 의료진, 돌봄시설 의료진, 간병인 등 및 입원자, 중증 당뇨 환자, 만성 신장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li> <li>- 세 번째 그룹 : 71세~75세 고령자, 망명 및 노숙자 보호소 거주자, 의료시설, 특히 병원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직원 (예 : 클리닉 및 관행의 청소 직원 또는 병원 기술 직원) 및 공중 보건 서비스에 고용 된 직원에 노출 위험이 중간 정도인 직원(접종규모 약 550만명)</li> <li>- 네 번째 그룹 : 66세-70세 고령자, 중등도 질환환자 접촉자, 교사 및 교육자, 계절 근로자, 육가공 근로자, 택배업 및 유통업자 등, (접종규모 약 690만명)</li> <li>- 다섯 번째 그룹 : 60세-65세 고령자, 소매업, 주 및 연방 정부 주요직원, 중요 인프라 직원(소방대, 군대, 경찰, 대중 교통 또는 폐기물 관리) (접종규모 약 9백만명)</li> </ul> </li> <li>○ 개봉한 백신앰플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개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유동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제1조 3항)</li> <li>○ 교사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2.24 개시</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 시 우선순위나 나이 제한 없이 접종 가능</li> <li>○ '21.5.22일부터 안센(Johnson &amp; Johnson) 백신 접종 시행</li> <li>○ '21.6.7일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 해제, 성인 누구나 접종 가능</li> <li>○ 6.7일부터 12세 이상 아동 및 모든 성인은 백신 접종센터와 가정의를 통해서 예약 및 접종 가능</li> <li>○ 슈판 보건장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허용 요청</li> <li>○ 의료시설 및 요양원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21.12.10)</li> <li>○ 병·의원, 요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22.3.15-)</li> <li>○ 22.3월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행</li> <li>○ (22.5.30 기준 백신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약 63,100,000명(전국민 대비 75.9%) / 화이자, 모더나, AZ, 안센 등</li> <li>- (3차) 약 49,600,000명(전국민 대비 59.7%) / 화이자, 모더나 등</li> </ul> </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고령층 등 취약집단부터 우선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 직원 등 100만 명 대상 우선 제공</li> <li>- (2월~) 코로나19 취약 만성질환 환자, 의료진을 중심으로 1,400만 명 대상 제공</li> <li>- (4월~6월) 전 국민 대상 확대</li> </ul> </li> <li>* 의무 접종이 아닌 선택이며, 프랑스 인구보다 많은 1억명 기용 백신 2억 회 분 확보(인당 2회 접종)</li> <li>* 무료 제공으로, 사회보장예산 약 1조 9천억 원 책정</li> <li>○ 코로나19에 취약한 50-64세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li> <li>○ 3.20 기준, 613만 명(프랑스인의 10%) 1차 접종 완료, 이 중 절반은 2차 접종까지 완료. 4월 중순까지 천만 명, 5월 중순까지 2천만 명, 올 여름까지 3천만 명(프랑스인의 50%) 접종 목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3월 말까지 EU에 4백만 회 분 추가 백신 제공 예정</li> <li>○ 3.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단, 55세 이상에게만 권고</li> <li>○ 유럽연합(EU), 코로나19 백신 접종 7.14일까지 집단면역 달성 목표, EU-제약사 간 계약한 물량 확보 전까지는 역내 생산 백신 수출제한 등 규정 강화</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연합, 아스트라제네카 공급 계약 종료(6월) 이후 추가 계약 계획 없음. 화이자와는 2022-23년 가용 백신(18억 회 분) 계약 체결</li> <li>○ (22.5.31 기준 백신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54,402,348명 (전국민 대비 약 81.0%)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li> <li>- (2차) 53,499,262명 (전국민 대비 약 80.0%)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li> <li>- (3차) 39,947,927명 (전국민 대비 약 60.0%)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li> </ul> </li> <li>※ 프랑스 정부 사이트 백신 접종자수 업데이트 지연(22.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21.12.1~) 50세 이상 백신 추가 접종 권장</li> <li>* ( '21.12.15~) 65세 이상 고령자 및 안센 백신 접종자 대상 추가 접종 의무</li> <li>* ( '22.1.15~) 18~65세 미만 대상 추가 부스터샷 접종 및 보건증명서 연장</li> <li>* ( '22.4.8~) 60~79세 대상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6개월 이후부터 4차 접종 가능</li> </ul> </li> <li>○ '21.5.10일부터 만 50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 5.3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확대 (단, '21.5.12일부터는 5.31일 전이라도 여분의 백신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 없이 하루 전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및 접종 가능)</li> <li>○ '21.6.15일부터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 확대</li> <li>○ 1차 백신 접종 후 2차 백신 접종 간격 최대 49일까지 연장 발표( '21.6.15)</li> <li>○ 9월부터 80세 이상 고령 면역 취약계층 대상 3차 백신 접종 시작</li> <li>○ 특수 작업 종사자(보건, 복지, 경찰, 군인 대중교통, 의료계 등)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21.9.15)</li> <li>○ 18세 이상 모든 연령 대상 부스터샷 접종 시작</li> <li>○ 18세 이상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완료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후부터 부스터샷 접종 가능</li> <li>○ 유럽연합위원회, 면역취약계층 및 고령자 대상 4차 백신 접종 권장( '2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 시점부터 면역력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참고, 국가별 상이한 권장 연령대 제안(프랑스 80세, 독일 70세, 네덜란드 60세 이상)</li> </ul> </li> </ul>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의약품청(EMA), 스페인 다국적 기업 Hipra 개발 첫 스페인 코로나19 백신 PHH-1V 승인 검토( '22.3.29)</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백신 : 2종(Sputnik V, EpiVacCorona)</li> <li>- Sputnik V 생산계획국가 : 헝가리, 인도, 한국,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li> </ul> </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 개시(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접종대상 : 의료진, 교사, 공공서비스 분야 근로자 / 18~60세</li> <li>- 백신생산량 : 232,000 도즈(~2020.12), 6백만 도즈 / 월(2021.1~)</li> <li>- 기타 : Sputnik V 효능 91.4%, Sputnik V 접종 유효기간 2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결합 접종 실험</li> </ul> </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자 150만명 돌파</li> <li>○ 모스크바, 1.13일부터 호텔 및 여행사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예정</li> <li>○ 러시아 백신 '에피박코로나' 60세 이상 고령 대상 3단계 임상시험 완료(접종효과 지속 기간 1년) 및 3월부터 대량 생산 시작</li> <li>○ 모스크바 시민 백신 접종자 약 1백만명 달성</li> <li>○ 러시아 군대, 40만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li> <li>○ 푸틴 대통령, 자국의 백신으로만 21년 8월까지 60%의 러시아인 접종 완료를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700만회, 2월 1,100만회, 3월 1,500만회 백신 생산 예정이며 8월까지 총 7천만회 접종 예정</li> </ul> </li> <li>○ 러시아 첫 번째 백신 스푸트니크 V 판매 가격 인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기준 스푸트니크 V 백신 약 1,100만명 접종 완료, 현재 러시아인 대상 무료 제공</li> <li>* 스푸트니크 V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최근 국내외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현재 접종이 중단된 상태임</li> </ul> </li> <li>○ 모스크바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을 받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00루블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 실시</li> <li>○ 중국 백신 Convidetsiya, 러시아 내 백신 등록 대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러시아 연방 보건부에 최종 결과 제출 후 등록 여부 결정 예정</li> </ul> </li> <li>○ 러시아 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30명에 육박했으나 모두 안정적인 상태</li> <li>○ 해외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 1억명 돌파</li> <li>○ 튀니지 보건부, 범용 부스터로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등록</li> <li>○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후 러시아에 백신 등록 신청 예정</li> <li>○ 유럽연합 의약품 평가청(EMA), 스푸트니크 V의 생산 기준에 대해 긍정적 평가</li> <li>○ 스푸트니크 V 백신, 오미크론 균주에 대해 화이자 의약품보다 2배 이상 높은 보호력 입증</li> <li>○ 모스크바, 10대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li> <li>○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22.3월에 스푸트니크 V 생산 현장 방문 예정</li> <li>○ WHO, 러시아 제재 제한으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으로 스푸트니크V 백신 평가 잠정 중단</li> <li>○ (22.6.6 기준 백신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81,100,653명 (전국민 대비 55.5%) / Sputnik V, EpiVacCorona, Covivac</li> <li>- (2차) 73,998,668명 (전국민 대비 50.6%) / Sputnik V, EpiVacCorona, Covivac</li> </ul> </li> </ul>